제대로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시업체●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비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립해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마출서비스 제공
1588-5656 (080-022-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8월 3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며 내 마음에 극락이 있다.
〈화엄경〉

법회 안내

영화사 (02)575-7766
성불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구미 금룡사 (0546)52-6570
신도법회 매월 7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춘천 삼운사 (0361)53-6542
정기법회 매월 21일
신도법회 매주 토 오후8시30분
학생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11시

나주 다보사 (0613)34-4201
지장재일법회 매월 19일(음)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진주 호국사 (0591)41-4394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지장법회 매월 19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천안 성불사 (0417)565-4567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청주 연화사 (0431)62-031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원주 성불원 (0371)762-4848
불광청년회법회 매주 수 오후6시
상장법우회 첫째 수 오후 6시30분
교양법회 둘째 토 오후3시30분
선우가족법회 매월 첫째 · 셋째 화 오후7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40만기 수용 납골당 건립된다

태고종 보륜정사 주민동의 얻어 양평에…장묘법 촉진 계기

매년 여의도만한 땅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 93년 현재 전국묘지면적은 약 1천㎢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달한다. 이제 한국인들은 죽어도 마음 놓고 묻힐 곳을 찾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

장묘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규모 불교 납골묘원이 건립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상계동 소재 태고종 보륜정사(주지 진혜공스님)는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산 17번지 일대 1만 2천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납골당을 조성, 총 40만기를 수용할 예정이다. 보륜정사는 건평 3천평에 만(卍)자 모형의 영탑 5개를 건립하고 납골당외에 54평의 돔형 법당을 비롯 관리사무소, 식당 등 각종 현대식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탑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이 납골묘원은 가족단위의 묘역을 설치할 수 있고 각 종교별 의식이 가능하며 컴퓨터로 관리된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기까지 10여년이 걸렸습니다."

주지 진혜공스님은 "무의탁 행려 사망자유골과 연고가 없는 유골도 이곳에 모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현재 한마음선원 금왕·재주지원이 모범적으로 영탑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시흥 영각사가 97년 준공예정으로 영묘전을 건립중이다. 이밖에도 서울 하도암, 대구 만불회, 복지법인 보현회, 대한불교 진흥원 등 10여개의 사찰과 단체에서 납골묘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상의 시신을 잘 모셔야 한다는 전래의 장례풍습과 지역주민이 납골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인식이 납골제도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 또한 정부가 지난 93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으나 3년째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장묘제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납골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계법률마련과 아울러 종교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중근 기자〉


◇전국 말사로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는 천태종 스님과 신도들.

'불자가정' 천태종 동참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스님)이 종단차원에서 참여 1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문구를 추가해 제작된 이 스티커는 천태종 총무원이 전국 말사와 산하 신행단체에 직접 우송해 종도들의 가정에 부착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천태종보'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단과 신행단체의 계속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태종 △(주)세화실업(상무이사 고기윤) △본원정사(주지 원성) △대구 도정암 △경남 백림사 △명인불자회 △현대불교 부산지사 △경북 삼천사 △향림사 △호국광명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광주 법림사 △여수 한산사 △청원사 금강회 △경남 다례원 △(주)티잉 소프트 △용산 원각사 △송근웅△변문희 △이종선 △최무진행 △조덕희 △김연주 △류태호 △서동역 △최호윤 △이상구 △이태현 △강호랑 △전상섭 △박종흔 △김명화 △이성자 △권영화 △김은영 △정옥희 △허승한 △송영태 △전봉재 △최행순 △김덕재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화엄사 석탑서 '신라 종이' 발견

지난 21일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전남 구례군) 법당 앞 서 5층 석탑(보물 133호) 보수도중 9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뭉치(위)와 청자양이병 청동합등 사리 장엄구(아래) 8종 29점이 발견됐다 〈관련기사 13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

청교련, 교계 최초…각지부·지방별로도 운영

불교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교계 최초로 설치된다.

(사)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오는 9월말까지 불교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안을 최종 수립하기로 했다.

청교련은 9월31일까지 불교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추진단을 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자원봉사자 및 수요자에 따른 범위별, 분야별, 지역별 활동영역을 확정을 방침이다. 또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각종 복지시설등 자원봉사 수요자 파악 및 자료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 지침서 발간 등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전개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교련은 중앙뿐만 아니라 9월중순 설립 예정인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를 비롯 각 지부 및 지방별로 불교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지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화 한다는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종단차원의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일반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로 구분하고, 일반 자원봉사센터는 조계종 복지재단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청교련이 메인 센터로 핵심적 기능을 다하게 된다.

불교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와 수요자는 9월20일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

목어

"새사람 만든다기에 보냈더니 이에 사람을 죽였다." 21일 새벽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으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같은 통곡에 책임감을 느끼거나 함께 눈물 흘린 이들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한번도 못본 내 딸을 누가 데려 갔느냐." 뱅인부부의 울부짖음에 가슴 아파한 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

"대가 조금 비틀어지려 할 때 부모가 당분간 안심하고 맡길 청소년 선도시설만 있어도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이 운영해온 경기여자기술학원에는 가출소녀, 윤락여성 출신, 가정이 어려워 기술을 배우려는 꿈에 부푼 소녀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다. 모두 혼자 일어서기에는 힘든 여성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10억원씩을 지원하고, 장로회총회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내세워 이들의 교육을 맡았을 것이다. 그 교육원이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출한 10대 청소년은 1만 1천3백63명. 그중 여학생은 모두 5천9백35명이다.

이처럼 많은 우리의 어린 딸들이 왜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일까. 병들어가는 이 어린 양들을 누가 거둬 교정·교화할 것인가. 가정에서 속수무책이라면 제2선으로 사회가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교정교육에 있어 종교의 몫은 어느 사회단체 못지 않게 크다고 본다.

비행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마치 묘목이 시들어가는 산림과 다르지 않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열반경〉의 말씀을 종교인 모두 함께 독송해 보자.

"방심을 내어 중생을 길러주듯 보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개미까지라도 공포에서 건져 주는 것이 수행자의 의무이다."

새사람 만든다더니…

법인관리·관람료·사면법등 논의

종법개정심의위, 9월 종회 상정키로

제4차 조계종 중앙종회 종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장 성문스님)는 지난 24일 법인관리법 사면법 관람료관리법 중앙종회법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법인관리법안은 지난 117회 임시종회에 상정됐던 안을 토대로 오는 9월 13·14일 심의위의 검토를 거쳐 의원발의로써 제118회 임시중앙종회에 제출 된다. 종법개정심의위는 총무원에 법인관리법안에 대한 정식 의견서를 13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면법 개정안 마련은 위원장에, 관람료관리법은 기획실에 법안마련을 요청키로 했으며 중앙종회법은 독립예산 권성등 자체안을 마련 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종법개정심의위원회가 법안 제정도 할 수 있다고 자체 해석을 내려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유침, SF_6 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융절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산업용 기기및 설비 : 권프 감속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삭도, 선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 화학장치, 주차설비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서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고유전자 접촉기, 차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 효성빌라, 주택건설, 각종 건축 공사
FA기기 산업용기기 전선 회전기기 중전기기 전력전자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사 설

체계적 승려교육 의무화돼야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개혁추진위가 향후 해 나갈 사업의 첫째가 종단의 교육기관을 감독 평가, 둘째가 교육기관별 위상을 점검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 셋째 교육체계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수립, 넷째는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체계 수립 등이다. 총무원과 교육원 그리고 교육관련 스님들이 망라되어 조직을 구성, 전교육기관의 체계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니 늦으나마 다행한 일로 여기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전 불교계가 여망한 일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는데 이런 저런 교단 내외의 사정으로 이제 비로소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싶다.

생각해 보면 삼국시대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의 종교인 불교는 근세에 들어 변화하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왔다. 그 까닭은 여럿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부대중의 핵심인 승가가 일관된 이념과 사회적 의식으로 결속하지 못했던데 있다고 생각한다.

비구와 대처의 길고도 오랜 싸움은 정치적 관단과 협력을 받아 비구의 승리로 굳어졌지만 지금도 그 후유증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명분이야 어떠했든 불교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손에 맡긴 비극이었다. 가까이 10.27 법난 또한 승려들이 굳건한 통합과 종교적 결속을 통해 사회정치적 위상을 과시하지 못한 수모요 비극이 아니겠는가.

한 시대의 불교는 전통의 재해석과 자기확인을 통해 나름의 '양식'과 '이념'을 수립하면서 불교의 중심인 승가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갔다. 그런데 지금 불교는 조선조 후기 이후의 자리멸렬과, 일제시대 이후의 자기망각, 그리고 해방 이후의 오랜 종권주도권의 싸움 끝에 지쳐 있다. 그럼에도 산중 한켠에서는 눈푸른 납자들이 정정하고 청신한 기풍을 잇고 있다.

대중의 교화를 담당한 승가는 수행의 힘 못지 않게 승단 내부의 조직과 수도인의 역할분담을 통해 전통을 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다. 출가집단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관행과 규범을 떠나서 그리고 그를 받쳐주는 내적 동의의 결속력이 없으면 하나의 집단- 승가라는 말이 바로 그 공동체를 말한다- 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

가장 파격적인 우상파괴적 일탈을 가르치는 듯한 선종에서 청규를 통해 수행인을 규율하고 통합하려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결속은 이념과 행동양식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덕목이고, 그런 점에서 승가는 이제 초월성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기초덕목으로 자각하도록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는 역경의 현대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한 과감한 재인식이 들어있어야 한다. 당대 大衆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지 않을 때 어떤 종교도 이념도 생명의 자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정말이지 절실한 것이다. 승가 교육의 이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자를 양성하며, 그를 통해 근세 천년이래 잠들어가는 불교를 다시 일깨우는 관건이 이곳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다운 승가교육의 확립이야말로 불교중흥의 초석임을 명심하자.

"사찰 관람료 30% 교육예산으로…"

선우도량 9차 수련결사

미래사회 대비한 종단교육 방향과 역할

교육을 통한 올바른 승가상 정립과 승풍진작이라는 과제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으며 승가교육문제를 집중 다뤄온 선우도량은 제9차 수련결사의 주제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종단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잡았다.

지난 21~23일까지 실상사에서 실시된 이번 수련결사에는 선우도량과 교육관계자 스님 50여명이 참석해 각 주제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결사에서는 △각 교구별 교육위원회 구성, 폐지된 사찰관람료 30%(공동예치금)를 교육예산에 활용 (현응스님) △대학에서도 포살제도화, 강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지운스님) △중앙승가대의 장단기 발전계획 (금정스님) 등이 제시됐다. 특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박세일씨가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교육 구상'을 주제로 1시간여에 걸쳐 특강을 실시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이번 결사에서 발표된 각 발제와 함께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참석스님들은 지방·중앙승가대, 기초선원, 동국대 등 각 기본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려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충실도를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단 승가교육의 당면과제


현응스님

종단교육의 성패가 어느 한가지 요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의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역자 관리문제, 각급 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교육원이 종단 교육의 주체자로서 본격적으로 가동되 교육분담금 규정을 신설하여 본말사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분담금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종단적 차원의 교수인력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리도 하루빨리 선결되어야 할 요건이다. 전통강원의 전강제도 활성화와 아울러 전문교육기관인 각종 학림이나 율원, 승가대학원 이수자와 석사, 박사스님을 대상으로 단기과정의 교수양성제도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수행·교육·포교등 각종 사항이 기재되는 교육카드제도 확립돼야 한다.

〈선우도량 사무총장〉

지방승가대 발전방향과 역할


지운스님

강원(지방승가대)은 초발심 수행자의 모임으로서 평생 승려생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강원의 기둥축은 계율과 교법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계·정·혜 삼학이며, 강원의 발전방향 또한 이 특성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이라는 이름은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승가공동체와 수행체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 체계속에서만이 출가정신의 함양과 불교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간경(看經)의 수행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강사와 학인이 수평적 관계에서의 문답식의 강의 역시 필수적인 요소다.

강의언어 형식은 비유와 부정을 대폭 개편해 기초강원 및 기초선원의 장점을 살려나갈 계획이다.

불교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교대학원을 설립해 보다 깊이있는 불교학 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불교사학과 역경학과 등 불교 독자적인 분야를 선정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며 교학교류 및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결코 강원의 역할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해 줄수 있다.

교육인력과 연구인력을 상호교환하거나 교환학점제를 적용 강원교육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교재 공동개발 등 기본 승려교육도량으로서 내적 외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중앙승가대학 기획실장〉

중앙승가대 발전방향과 역할


금정스님

중앙승가대학의 지향점은 전통적인 승가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체계를 섭렵하여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자질을 연마하는 교육을 위해 현재의 교과목과 학사과정을 대폭 개편해 기초강원 및 기초선원의 장점을 살려나갈 계획이다.

불교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교대학원을 설립해 보다 깊이있는 불교학 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불교사학과 역경학과 등 불교 독자적인 분야를 선정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며 교학교류 및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결코 강원의 역할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해 줄수 있다.

교육인력과 연구인력을 상호교환하거나 교환학점제를 적용 강원교육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교재 공동개발 등 기본 승려교육도량으로서 내적 외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중앙승가대학 기획실장〉

교구 교육위 구성…예산확보 관건

고 지방차원의 교구별 교구교육위원회 구성과 지방과 중앙교구간의 밀접한 이해·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교구종회법에 의거 본사소임자 4명, 말사주지·직선교구위원 4명, 교육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적합하다 판단된다.

폐지되는 사찰관람료 30%(공동예치금)를 교육예산에 활용하고, 말사에 교육분담금을 부담시키는 교구

'강원' 명칭회복·간경수행 활성화를

교과·학사과정 개편 연구기능 강화

토론요지 "중앙·지방승가대·기초선원 균형발전안 모색하자"

전체토론에서는 교육원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앙승가대의 비대화문제·비구 비구니 분리 교육실시여부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앙·지방승가대, 기초선원, 동국대 등 승려 기본교육기관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살려 승가상을 정립하고 승가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경숙·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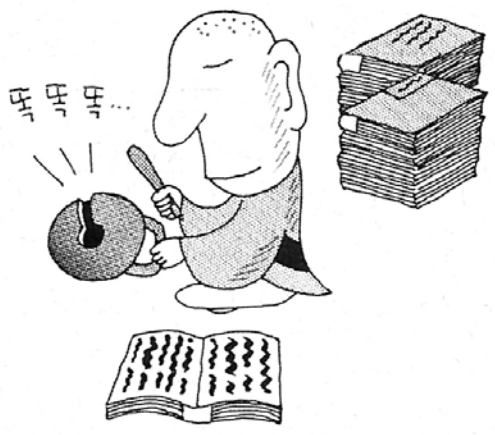
현응스님이 발표한 '승가교육의 당면과제에 대하여'에 대해 종석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논평을 통해 교구교육위원회 구성, 교구 교육분담금 신설, 전 승려의 교육인사 카드제실시안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 다만 교역자 양성에 있어 처우나 법계품수 등도 보완해 관리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 지방승가대와 더불어 동급의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동국대나 중앙승가대학과의 평준화문제(교수진의 확보, 교과과정, 교육내용)도 함께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강원'이란 명칭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지운스님과 '지방승가대학'이란 명칭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교육원 스님들과의 입장대립이 이번에도 첨예하게 나타났다. 지운스님의 '지방승가대 발전방향과 역할'에 대한 논평에서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지방승가대의 특성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지만 교과내용 및 과정 등의 현대화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정스님이 발표한 '중앙승가대의 발전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평자 지홍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승가대학이 승가의 모든 교육을 통폐합하여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무리"라 지적하고 "불교관계의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수학 할 수 있는 대학원 중심으로 발전해야 전문화 다양화 정보화의 미래세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모든 분야에 정책적 투자가 요망되는 이 시점에 종단예산의 3분의 1(20억 이상)씩을 몇년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수해 내느냐는 점도 지적했다.

현대만평

박구원



'깊은 소리'를 내려면…

경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영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국씨 전 영양소(한국총판)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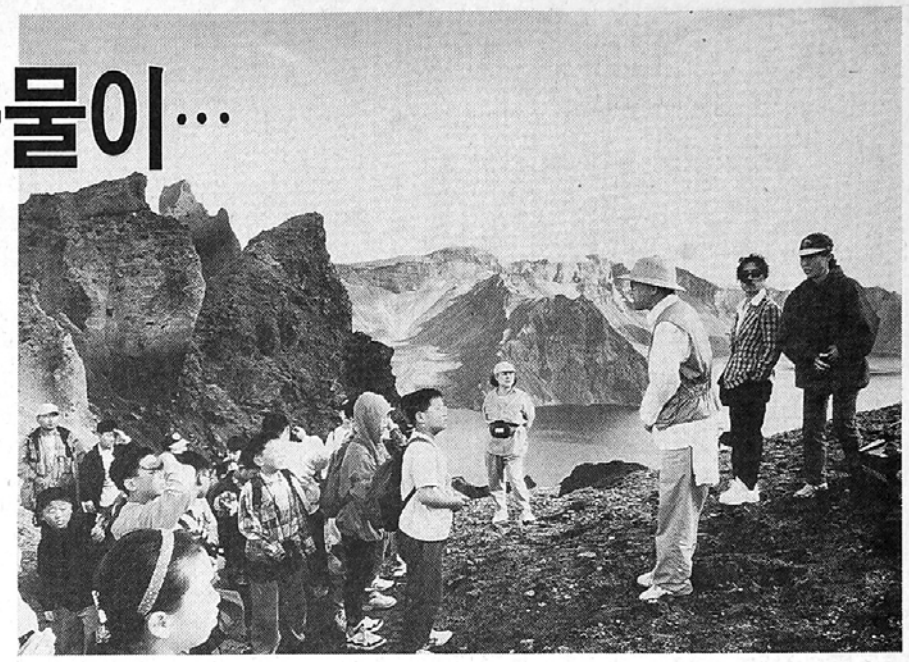
만고의 '청정법신' 천지보니 눈물이…

광복 50년 1995년 8월 15일

백두산에 오르다

고 은

정상오르자 구름 걷히며 16개봉 대장관
벅찬 감동·환희속 새싹들과 통일 발원



◇백두산 정상 '천지'. 구름을 뚫고 나타난 장엄이아말로 우리민족의 청정법신이다. 고은씨가 어린 불자들에게 바른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서사시 「백두산」 전 7권의 지은이가 그 중심무대인 백두산을 상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단의 한 비극이었다.

그것을 끝마친 1년 뒤에야 백두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작가동맹의 초청과 연변대학 초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갈 처지가 아니어서 그만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동쪽나라 어린이 국토순례단의 백두산 순례등반 어린이 1백 몇십명과 동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뜻있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차 이 겨레와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과 함께 이 겨레 5천년의 정신을 표상하는 백두영봉에 오른다는 것은 시련으로 이어진 시대를 살아온 나로서는 하나의 축복이었다. 나뿐 아니라 동쪽나라 대표 김형균씨도 가장 천진난만한 백두산의 어린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최남선 일행이 항일독립군을 경계하는 일본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혜산진에서 삼지연 경유 백두산에 오르는 과정을 써놓은 글을 읽은 일이 있거니와 이제까지 나는 가능하면 백두산을 우리나라 땅을 거쳐서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경로로 오르는 일을 기다릴 수 없었다. 또한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자치주인 연변은 동포의 생활근거지로서의 긴 족적 실체를 인정해야 할 때 그곳을 통해서 백두산에 다가가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백두산 정상 천문봉 턱밑까지 자동차 길이 만들어져서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벅찬 감회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 온몸이 떨리는 바는 어쩔 수 없는 내적 충만이었다.

이윽고 천지를 내려다 보게 되었을 때 천지를 덮고 있던 구름이 마치 우리 일행을 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흩어져서 백두영봉 열여섯봉우리와 그 봉우리의 그림자마저 담고 있는 푸른 천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도 없었고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도 없었다. 요컨대 속수무책이었다.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몇개의 봉우리를 칼날처럼 예리한 능선으로 이어주는 비탈을 세찬 바람자락을 맞으면서 바보가 되어 어슬렁어슬렁 건너다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건너 쪽 장군봉과 망천후의 그 우렁찬 모습에 내 눈길이 닿자마자 거기에 불이라도 나는 것처럼 어떤 화염의 환각이 발했다.

백두산! 백두산 천지!

그것은 하나의 엄중한 도성(都城)이었다. 어떤 사악이나 어떤 수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전략의 절대로서 우리 겨레의 염원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두산 열여섯봉우리와 그 봉우리를 성으로 삼고 만고의 청정 법신으로 담겨있는 천지야말로 그것 없이는 우리가 결코 우리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

하지만 우리 겨레 몇천년의 역사는 과연 우리 겨레의 자연인 백두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바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자기반성이 있어야 했다.

1995년 8월15일은 우리 겨레가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서울의 경축식장에 있지 않고 어린이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내려다보며 통일을 발원하고 있었다.

나는 정작 그곳을 내려가는 도중 그 끝간데 모르는 수림지대의 광야를 내려다보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다음날 연길공항에서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의 창을 통해서 쾌청한 날의 백두산 일대를 손에 잡힐듯이 바라보게 되어서야 나는 그곳을 향해서 몇번이고 빌고 빌었다. 아무리 빌어도 모자랄만큼 빌다가 그 신성한 백두산을 놓치고 말았다.

어디에 가도 우리 겨레로서의 동포는 험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연변에 가도 일본에 가도 유럽에 가도 아메리카에 가도 그러했다.

바로 그런 삶의 의지야말로 백두산의 기상에서 발생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은 이제 확신이자 하나의 사실이다. 이제 우리 겨레에게는 새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겠는가.

〈본지 논설고문〉



◇관악산 봉우리 깎아지른 듯한 바위벼랑 연주대. 무학대사와 세종대왕에 얽힌 전설이 있다.

연주암등 관악산 명승고찰 탐방
내달 10일 두레 서울답사팀

처서가 문턱을 넘어 귀뚜라미 소리가 완연한 계절이다. 아침·저녁의 선선해진 바람에 그동안 더운 날씨로 미뤄오던 독서의 시간으로 파묻혀 지내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직장생활과 집안살림으로 꽉짜여진 생활에서는 그저 그런 기분이 사치로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휴일을 이용, 책을 읽는 것 못지 않은 경험과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보자.

문화유적 답사 모임 두레에서는 책 속의 지식 못지 않게 새로운 경험과 진리를 함께 탐구할 서울답사팀을 모집한다.

'관악산 문화유산 답사' 귀끝이 솔깃하지 않은가. 멀리 떠나야 여행이고 경험인 것은 아니다. 떠나보자. 문학박사 나각순씨의 안내로 관악산의 연주암, 자운암, 마애불, 삼막사, 한우물 등을 돌아보게 될 서울답사는 9월1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한다. (02)712-5812

신행수첩

변산에서 초가을 수행
용진 신행회

늦더위도 한풀 고개를 숙이고 아침 저녁으로 스산한 가을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즈음은 마음수행하기에 꼭 알맞은 시기다.

이때를 놓칠세라 용진신행회는 오는 9월10일 전라북도 변산 내소사와 개암사로 수행일정에 오른다.

못 하나 쓰지않고 나무를 깎아 서로 교합해 만들었다는 독창적인 내소사 대웅보전과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의 개암사 대웅전은 심산유곡의 그윽한 풍미를 한껏 자랑하며 참배객을 맞이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개암사서 조금 떨어진 원효방 굴아래서 솟아나는 샘물 한 모금에 목을 축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02)279-1191~3



◇원효와 의상이 머물렀다는 전북 부안 변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개암사.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인 대웅전은 조선중기 대표적 건축물로 꼽힌다.

수화로 부처님 진리를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무명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각장애 법우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시렵니까?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이 청각장애법우들에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실천의 공덕을 쌓기 위해 9월11일부터 3개월 기간으로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 향상의 길로 이끄시는 부처님의 자비속에서 보살의 행원을 실천하며 밝고 복된 삶의 길잡이가 되어 모두 함께 깨달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법우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듯.

강의는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8시30분이며 장소는 송파구 석촌동 연화복지학원. (02)202-5831

부처님 품속 즐거운 놀이
불교레크리에이션 특강

어린이포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건 역시 불교 백년대계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이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는 2학기를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불교레크리에이션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에는 불교기초교리, 포크댄스, 찬불가 율동, 동요부르기,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불심을 높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에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강의는 9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02)934-1748

소백산 절경 희방사로
불교 신행연, 문화기행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이 분맥하면서부터 시작된 소백산의 비로봉·연화봉을 사이에 두고 계곡마다 천년고찰이 즐비하다. 부석사, 희방사, 석륜사, 성혈사가 그 대표적.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불교 문화기행을 떠난다.

이번 기행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이며 국보 18호인 무량수전, 의상조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석사, 임진왜란때 승군의 짚신을 짜서 보급하는등 호국불교의 일익을 담당했던 용문사등의 불교 문화유적을 둘러보게 된다.

한편 각 사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02)587-6613

◇기사넘쳐 '부처님의 자구사랑' '95 신행캠페인' 쉽니다.

社告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신문 판촉사원을 찾습니다

현대불교는 불자들이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전 지면을 신행위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들 가정에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를 보급하는 일에 저희와 함께 동참할 '일선 전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시 기	자 격	구비 서류	대 우
신문 판촉 요원	00 명	상 시	제한없음. (교계활동 경력자, 가정주부 환영)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소정의 활동비 및 능력급 지급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02)737-8881 판매담당자에 문의 바람.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속의 불교 ㊳

수학문제를 못 푸는 중학생에겐…

살아있는 생물이면 어떤 것이건 하나 예외 없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같건 크건 아니면 중간치이건,

또는 짧건 굵건, 길건 가늘건, 왜소하건 장대하건,

잘났건 못났건, 보기에 좋건 안 좋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친하건 안 친하건,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눈이 보이건 안 보이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자비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자비란 조건 없는 사랑이다. 형상을 따지지 않고 선·악을 뛰어넘는다. 하물며 귀천을 따르겠는가. 죄가 있든 없든, 거지든 부자이든, 심지어 벌레든 짐승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아낌 없이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의 근본이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빠져드는 감정이나 악의와 분노, 증오의 감정은 자비의 적이다. 자비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한다.

상대가 하찮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밉게 보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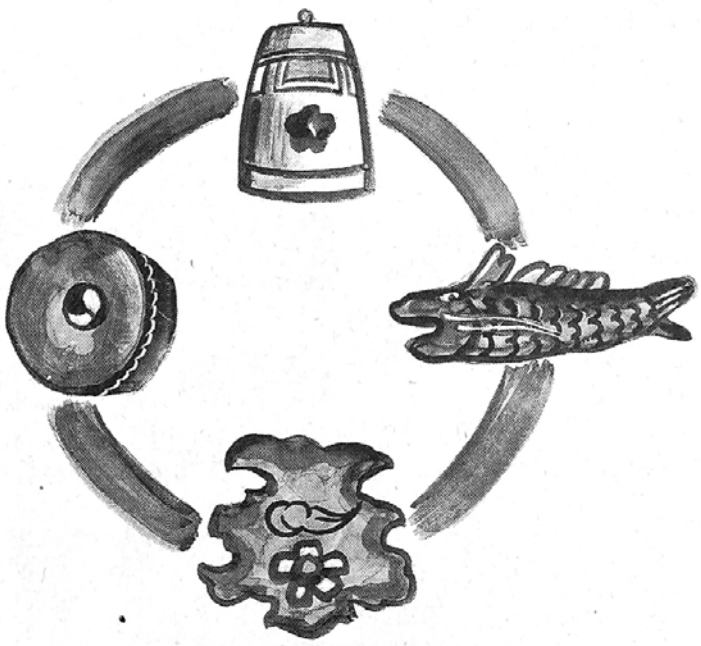
상대가 무능해 보이고 그릇되어 보이고 탐욕스러워 보일 때

'저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시절의, 못났던 시절의 나의 모습이지.' 하며 아량과 지혜로 감싸줄 수 있는 게 자비이다.

상대가 아만·탐욕·증오를 드러낼 때, 번민과 고통에 잠길 때,

모든 이에게 선의와 이해심이 넘치기를, 모든 이가 증오와 적의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자비이다.

자비는 삶을 윤택하게 한다. 사람들을 한 그루의 거목처럼 자라나게 한다.



자비는 과거의 공덕이 현실이 과보로 열매 맺게 하는 힘을 갖는다.

자비는 삶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한다.

자비야말로 삶의 목적이요, 삶의 차원을 높이는 동력이기도 하다.

자비야말로 수억겁 세월 동안 누적된 업장을 녹이는 용해제이기도 하다.

삶 속에서 자비를 생활화하자면 먼저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를 마음으로 흔쾌히 수용하여 동심원(同心圓)이 되어야 한다. 자비는 거창한 그 무엇, 숭고한 그 무엇이기 이전에 희노애락이 뒤엉킨 생활 속에서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작은 등불이 불법을 살린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따뜻한 마음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 그것으로써 불법은 들불처럼 살아서 번진다.

대학생이 수학을 잘 할 줄 모르는 중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못났다고, 잘 모른다고 핀잔을 줄 수 있겠는가. 따뜻한 마음으로 찬찬히 일러주는 게 도리이듯이 자비란 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자세로 상대를 감싸주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일체 만중생을 그와같은 마음으로 감싸안은 크고도 넓은 자비이다. 고로 대자대비이다. 모든 중생과 근본으로부터 한 몸이 되신 것이기에 동체대비인 것이다.

협찬: 김 희 주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장애인들 영혼에 佛心 지펴야죠"

'바라밀展' 100일기도 회향한 랑 승 만 시인



불교시인 랑승만씨가 제2회 바라밀전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100일 기도를 지난 20일 회향했다.

90년 같은 명칭의 첫 전시회를 열기도 했던 랑시인의 두번째 바라밀전 개최 목적은 장애인 불교정신문화원 설립기금을 마련키 위한 것.

전시회의 원만성취 100일 기도를 회향한 랑시인은 "장애인들 가운데는 성한 사람 못지않게 창의력을 발휘하여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또한 시집을 내놓는 일들도 있으며 열심히 그림공부 문학공부 음악공부를 하는 장애인이 많다"며 장애인들의 꿋꿋한 재활의지를 설명했다.

문화원설립 위한 전시자금 턱없이 부족

바라밀전을 위해 랑시인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시서화 90여점을 비롯 성원스님의 불경병풍, 석주 중광 수안 설봉스님의 글씨와 선화 도자기 그리고 좌산 정순일, 남곡 김인홍, 월강 강난주선생 등 내로라 하는 예인들의 작품 180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모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장애인 불교정신문화원 설립을 위해 쓰여진다. 문화원에는 법당과 미술실 글짓기교실이 들어서며, 장애인들의 작품을 발표할 정기간행물 발간계획도 포함돼 있다.

랑시인은 "장애인들의 맑은 영혼에 꺼지지 않는 불심을 심어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제방의 불자님들의 자비넘치는 인연의 손길이 없으면 실현불가능한 일이 되고말 것입니다"라며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당부했다.

지난 80년 뇌졸증으로 반신불수의 고통속에서도 '반야의 산바람 물소리' '억새풀의 땅' 등의 시집을 통해 불교의 인연과 무상의 원리를 절창으로 일궈낸 랑승만시인은 현재 장애인불교문학회장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인천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불교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교육

제1기 자원봉사관리자 양성교육이 지난 23일~25일 총무원 문화교육관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불교간병인회등 기존 봉사단체회원들과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스님과 불자 1백50여명이 참가해 불교와 사회봉사, 자원봉사관리자와 봉사센터의 역할, 자원봉사 조직관리, 자원봉사자 개발육성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호국 선봉사 연화실 낙성법회

3군사령부 군법당 호국 선봉사(법사 정선진) 연화실 낙성법회가 지난 5일 봉행됐다.

지장·신중탱화 점안식을 겸한 이날 낙성식에는 소림불교아카데미 원장 지형스님과

바늘끝마다 '至誠無息' 정신 담아

산문밖의 禪

양복장이 50년 이 해 주 翁



종로1가. 셀프서비스 커피숍과 화려한 네온이 번쩍이는 노래방으로 어수선하지만, 79년째 가업으로 이어오는 종로양복점 대표 이해주옹(82세)에겐 여전히 양복점 거리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교보문고에서 제일은행 본점의 중간쯤에 자리잡은 종로양복점. '1916년 창업'이라고 쓴 쇼윈도의 조그만 문구가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3평 남짓한 공간에 양복지며 잣 가봉을 마친 서너벌의 양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다. 여느 양복점과 다름없이 평범하다.

1916년 개업 3대째 가업

79년이라는 연륜에 비해 다소 실망스럽지만 다시 눈길을 돌리면 분명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누렇게 색바랜 초상화와 '至誠無息(지성무식)'이라고 쓰인 액자가 그것이다. 양복점으로 가업 3대를 이어온 이 집의 내력과 그 속에 담겨진 정신의 뿌리인 셈이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지금은 아들에게 은영의 모든 것을 물려줬지만 매일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4시 퇴근하기까지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 이해주옹의 아버지 이두용옹이다.

이두용옹은 종로양복점의 창업주다. 일본인 아래에서 일하던 이옹은 1915년 등경양복학교에 유학, 양복기술을 익혀와 이듬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양복점을 개업했다. 당시 일본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던 양복시장에 과감히 뛰어든 것이다.

"한때는 재미를 톡톡히 봤다고 그래요. 일제 때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는데, 모두 우리집에 와서 맞췄어요. 일본사람들이 시기해서 싸움도 많이 했대요."

근대교육이 정착되면서 각급학교에 교복착용이 의무화됐고 학생들의 교복수요의 대부분은 '종로'가 수용했던 것. 그래서 각학교에서는 일본인 양복점과 증로양복점을 복수지정했으나 학생들은 '같은 값이면 한국인이 경영하는' '종로'를 찾았다. 이 바람에 각 학교에서는 일인양복점과 '종로'에서 반반씩 맞춰 입도록 강요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도 한때는 큰 재미를 봤다. 외국어대총장과 보사부장관을 지냈던 박술음씨, 이순용 전내무장관, 김석원 장군, 양순직 의원, 손주환 전의원 등 이름 석자만 대면 알만한 명사들이 그의 단골고객이었다.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옛날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일권씨가 구라파에 가서 양복을 맞췄는데, 가봉을 열다섯번이나 오더래요. 그러니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나중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집도 열다섯번까지는 못해도 서너번은 가봉을 해요. 좋은 양복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 명품이 나오느냐 졸작이냐가 결정돼요."

그리고 다시 한마디 덧붙인다.

"세상 일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허투루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잘 나가던' 때가 아님을 그도 안다. 결혼예복도 기성복으로 입던지 빌려 입고 치루는 시대다. 그래도 양복예찬을 펼쳐놓는 그의 노안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옷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복에서도 한푼을 다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성복이 아무리 잘 나와도 치수 제대로 안맞아요. 맞춤양복전문가들이 보면 결함이 많아요. 구라파 가더라도 주문양복점이 엄연히 있어요. 다시 고급으로 돌아가지. 옷은 그 사람의 개성과 품위를 드러내는 작품이거든."

맞춤은 손님과 기술자가 얼마나 통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주문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

"손님의 체형을 주의깊게 살피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 사람에 어울리는 모양이 머리속에 그려져요. 물론 다림질 한번, 손바느질 한땀하는 동안에도 지금 만들고 있는 옷을 손님이 입었을 때의 멋진 모습을 놓쳐선 안돼요."

이해주옹이 종로양복점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것은 6·25 직후부터. 본래 양복점 운영에는 뜻이 없었다. 보통사람들처럼 직장인이 되는 것이었다.

옷에 몸 맞추는 세태

보성전문(고려대 전신) 상과를 졸업하고 지금의 미도파백화점에 자리했던 정자옥(丁子屋)이라는 백화점의 만주지사 양복부에 취직했다. 7년간을 근무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했다.

"왜정시대에는 한 학급에서 10여명밖에 취직을 못했어요.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것이 정자옥이었는데, 그것도 양복부였어요. 그만큼 양복과는 깊은 인연이 있었나봐요. 형님이 아버님을 이어 양복점을 하셨는데 병환으로 일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네가 맡아서 해봐라'하시더라구. 그래, 6·25 직후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지요. 그때는 뭐, 거창하게 가업을 잇는다, 그런 생각보다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니까 해보겠다는 것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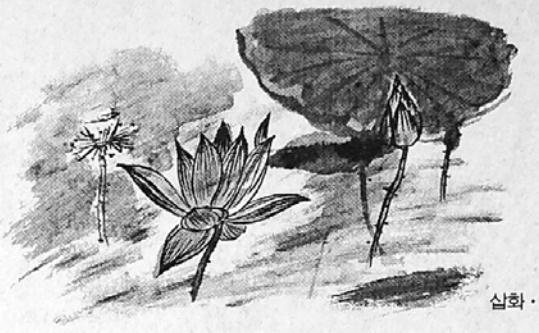
그리고 어언 45년, 반평생을 양복 짓는 일로 살았다. 뒤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생은 아니었지만, 너무 즉흥적이고 옷에 몸을 맞추는 식의 몰개성의 세태로 변해가는 세상을 보며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럴수록 액자에 새겨진 글씨가 더욱 새삼스럽다.

'至誠無息', 쉼없이 온 정성을 다하자라는 글자풀이에 이어 "신용을 지키고 지성으로 양복을 만들면 손님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문닫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짐하듯 한마디 덧붙인다.

50여년 그를 지켜준 다그침이었듯 기성복시대에도 그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가르침이다. 그를 이어 3대째 가업을 잇는 아들 경주씨에게도 입버릇 하는 얘기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씨와 각별했던 재일교포 서예가 이원영선생이 써주신 글씨라는 자랑도 잊지 않는다.

정성운 기자

손님의 개성·품위 미리 볼줄 아는 안목 가져야
"정성 쏟을수록 명품 나와…세상 일도 마찬가지"



삽화·이기선

효·선행·화목·인욕 생활화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㊵

수행(修行)

마음 곪으면 행실 바르지 못해

불교의 궁극적 수행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깨침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걸림없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깨침과 무애자재는 어느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일까. 누구나 참입할 수 있는건가. 여기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말하면 일상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깨침이나 해탈자재가 별개의 세계로 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적확한 해답이 있다.

육조 혜능은 다음과 같이 설파하셨으니 평상인에게도 보탐찬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공부하고자 하려면 재가자도 무방하니라. 진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절에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재가인이라도 잘 행하면 저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나니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자성이 곧 서방극락이니라"고 하셨다. 닦음에는 처소는 물론, 빈부귀천이나 유학무학을 구별치 않는 것이다. 불교가 없는 동방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밝게 닦아 착한 일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정토가 있는 서방인이라도 공부하지 않고 악한 일만 골라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삼악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재가자의 마음 닦는 공부

다시 혜능은 무상송(無相頌)을 지어서 재가속인의 닦음으로 삼고 자재한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마음이 평등하니 어찌 힘써 계를 가지며
행실이 정직하니 선을 닦아 무엇하랴
은혜 알아 부모님께 효성공양 잊지않고
의리 지켜 위아래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예의 알아 높고 낮음 서로 화목하고
인욕한즉 나쁜일들 걸릴 것이 하나 없네.

만약 나무 비벼 불을 내듯 할지면
진흙 속에 붉은 연꽃 어김없이 피어나리
입에 쓰면 몸에는 반드시 영약이요
거슬리는 말은 필시 마음에 충언이라

허물을 고칠지면 지혜가 살아나고
허물을 두호하면 마음 안은 어질지 않네.

일용생활 어느 때나 착한 행을 앞세우라
도 이룸은 재물 보시하는데에 있지 않다
보회도는 한결같이 마음 향해 찾을 것을
어찌 힘써 밖을 향해 마음 구해 헤맬손가.

이 말 듣고 이를 따라 수행을 닦을지면
천당극락이 환출하게 눈앞에 드러나리.』

얼마나 평이하고 간결한 표현인가. 마음 닦는 공부는 어렵다고 멀리 피해 가는 사람이 많다. 또한 얼마간 닦아온 사람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혜능스님의 무상송을 한번만 읽어봐도 공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사에서 찾을 수 있고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만사속에 깨침과 닦음이 있고, 닦음속에 깨침이 솟구쳐 오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대중이 할 수 있는 일

마음이 평등하여 모든 시비곡직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디에 얽매여 편중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의 생활속에 불평 부당한 시기심, 원망심, 복수심 다 사라지고 맹물마시는 시원함으로 마음갖는 것이 계지키는 것이라고 일러 주시니 저자에 있는 아낙이던 산골에 있는 나무꾼이던, 아니 사농공상하는 모든 대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행실이 정직하고 올곧으니 선을 닦아 무엇하리. 사람은 바르고 맑고 환하게 살아야 한다. 숨기고 어거지 쓰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때리기를 일삼으면 그 마음에 흠집이 생겨 종기로 곪아가게 되고 암으로 독집하게 된다. 곪은 마음은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사시의 눈으로 흘겨보게 된다. 이런 사람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그런데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실이 본성적으로 좋은 사람은 선을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교의 궁극적 수행은 마음을 바르게 바로잡는 일이다. 부모에 효성하고, 의리를 귀히 여기며, 예도범절에 화목하고, 인욕을 생활화하고, 범사에 충실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들 주변에 온갖 간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종기가 나서 밖으로 피고름이 스며 나오는 것이다. 마음의 암을 치유하면 본래 면목의 천진으로 들어가고, 동안으로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우리 손수 무상송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종기를 고쳐야 할 것이다.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자서전 ◎회고록 ◎출판대행
◎수필집 ◎시 집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번지 2호 선덕빌딩 3층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

카운슬러대학

제20기 입학안내

현대생활에서의 각종 스트레스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는 현대인의 지친 정신과 마음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카운슬러는 아름다운 「사회봉사직」입니다.
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온 본원에서는 그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카운슬러대학」 제20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전문카운슬러와 인간교육지도자를 양성,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개강 : 1995. 9. 14(목) (1년 전문과정)
- 과목 : 상담심리, 발달심리,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심리, 인간관계론, 감수성훈련, 교류분석, 정신위생, 상담기법, 심리검사, 위기개입, 부모교육, 상담실습
- 특전 : 본원 카운슬러 자격증 및 수료증 수여
- 과정 : 정규과정 및 지방거주자를 위한 통신과정
- 접수 : 원서는 본대학 교학과에서 배부(우송가능)
- 문의 : 본원 카운슬러 대학 교학과

☎ (051) 466-5161~2

교육부인가 전문카운슬러양성기관
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8-15 명지B/D 6층

법화경 강좌 안내

— 법화경은 <법화삼부경>의 약칭입니다 —

영남지역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처님의 정법인 〈법화경〉강좌를 아래와 같이 열고 있으니 불교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부산강원 : ①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② 장소 = 좌천동 〈오비신호등〉 옆 혜남한의원 3층 전관

◉ 대구강원 : ①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② 장소 = 신암 2동 〈동신국교〉 뒤 자동차부품상회 2층 전관

— 강의시간 30분전에 오셔서 접수하세요 —

※ 입회비 없음, 교재무료 · 회비 3개월분 3만원, 필기도구 제공

대구시 동구 신암2동 486-13
법화경 연구원
원장 최공덕
휴대폰 = 011-528-8711

法華經 大講座

(제1기생 모집)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이자!
법화경은 중생들에게 보살도를 가르쳐 최고의 행복을 주리니

1. 연구반 30명
2. 통신반 약간명

강 주 : 법화경의 태두 惠耕 큰스님
기 간 : '95. 9월 3일부터 6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부터
장 소 : 무설정사(84번 화계사 종점)
회 비 : 교재대 포함 20만원(분납 가능)
등록기간 : '95. 8월 15일 ~ 8월 30일

주 최 : 無說精舍 白蓮會
전 화 : (02) 983-0198
팩 스 : (02) 982-7598



■인터뷰 / 연변대발해연구소장 방학봉 교수

"발해불교 연구에 교계 관심을"

불교유물등 방치… 박물관 건립 시급

"발해의 제3대 문왕 대흠무가 자신의 존호를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라 칭할 만큼 불교문화는 발해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불교유물을 포함한 발해유물·유적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발해유물보관소 건립이 시급합니다."

오는 9월4일 오후 7시 조계사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토회국제사업부 주최 '발해사 학술강연'과 신라·백제 불교유적 답사를 위해 지난 19일 내한한 중국 연변대 발해사연구소장 방학봉교수(65세)는 발해사 연구에 불교계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3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주최 '발해사 국제학술토론회' 참석에 이어 두번째 내한한 방교수는 길림성 화룡현 출생으로 중국조선족 사학회 상임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발해사연구〉 〈동북민족관계사〉 〈발해문화연구〉 〈발해유적과 그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내놓은 발해사 연구의 권위자다.

방교수는 이번 초청 강연회서 발해사 연구의 몇가지 문제로서 발해의 첫 수도 문제, 발해의 강역, 발해의 상경성 복원문제와 최근의 발굴 성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

30여년간 발해 역사의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연구와 집필을 계속해 온 그는 "발해 불교와 한반도 불교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재〉

21세기 인류문명 비전 제시

불교 국제학술대회 연다

동국대 개교 90돌기념 내년 10월 24~26일

불교적 관점에서 21세기 인류문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규모 학술회의가 내년 10월24일~26일까지 국내에서 열린다.

종립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개교 9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 학술회의의 대주제는 「21세기 문명과 불교」.

국내 학자 10명과 해외 학자 10명등 20명의 석학들이 주제발표를 하게 될 이 학술회의는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조명 △종교 다원사회와 불교 △사회윤리와 불교 △자연환경, 생명과 불교 △한국불교의 세계화등 다섯개의 분과와 각 분과별 두개씩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분과의 소주제는 동일 주제별로 국내학자 1인과 해외학자 1인이 함께 발표를 하게 된다.

각 분과별 소주제는 제1분과 △포스트모더니즘과 불교 △정보문명론과 불교·제2분과 △종교와 평화 △종교다원론의 불교적 조명·제3분과 △사회 계층간의 갈등과 불교 △대승의 윤리와 사회정의·제4분과 △환경문제의 불교적 조명 △자연과 불교·제5분과 △한국불교 세계화의 이념과 방향 △세계 속의 한국불교의 현황과 전망 등.

동국대는 이 학술회의의 준비를 위해 이미 송석구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불교문화연구원장 권기종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간사 김용표)도 불교문화연구원 내에 설치해 해외학자 교섭 등을 서두르고 있다.

사무국에 따르면 이 학술회의에 참가할 해외 학자는 미국 5명, 일본 3명, 중국 1명, 스리랑카 1명 등이다. 아직 국내와 일본·중국·스리랑카의 학자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측 참가자들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선정된 미국측 학자는 해럴드 스위들러(템플대) 로버트 썰만(콜롬비아대) 칼루파나(하와이대) 로버트 버스웰(캘리포니아대) 박성배(뉴욕주립대)교수 등으로 알려졌다.

임연태 기자

고고학 연구의 기초자료

한중일 논저 7천여편 수록 '한국고고학문헌 목록' 나와



지난 7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간된 〈한국고고미술사연구논저목록〉 이후 시도된 가장 완성도 높은 한국 고고학관계 종합목록인 〈한국고고학문헌목록〉 (학연문화사 펴냄)이 나왔다.

편저자인 이헌재씨(경기도 향토사료실)가 김병모교수(한양대 박물관장)의 지도하에 완성한 이 목록집에는 한국 5천8편, 북한 5백5편, 일본·중국 1천8백67편, 구미제국 3백 86편 등 무려 2천 6백25명이 집필한 총 7천7백66편의 방대한 논저들이 수록돼 있다.

책의 구성도 고고학총론, 선사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유적과 유물로 구분하여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논저목록별색인과 논저자별색인을 첨부, 이용의 편리를 더했다.

이 책은 최근 10여년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많은 고고학연구자들에게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해사상·선시등 조명

만해학보 2집 발간

지난 92년 결성된 만해학회(회장 한계전 서울대교수)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만해스님의 문학·불교·선시를 조명한 논문 7편과 스님의 일화등 실천적인 글 4편을 실은 〈만해학보〉 제2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20세기 한국불교의 양대 지주로서 만해·성철스님을 설정, 이 두분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불교이념을 모색한 허우성교수(경희대)의 논문 '만해와 성철을 넘어서'와 건봉사 봉명학교 학승이었던 설산스님의 만해스님에 대한 일화를 담은 글 '만해선사의 오도송과 일화'가 눈길을 끈다.

점안식때 신도참석을 왜 막는지

문 어느 사찰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한다기에 새벽부터 서둘러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점안할 시간이 되니까 스님께서 신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바로 여쭈어 보질 못해 지금도 궁금합니다.

〈박철희·서울 양천구 목동〉

답 부처님 경전의 1차 결집 때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를 내쫓은 것과 같습니다.

근본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해 한마음이 안되기 때문이죠. 부처님 점안식 때 일반 신도들이 참석하면 의식의 진행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비유컨대 금을 정련하는데 다른 공물이 섞여서 순일해지기 어려운 것과 같겠지요. 한 생각이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네들끼리만 점안식을 올린 것입니다.

한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도리는

문 경전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이 가는데요. 〈최희용·광주 광산구 복룡동〉

답 어떤 분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을 켜들고 길을 간다고 합시다. 많은 이들이 그 불빛을 따라 가겠지요.

한 조직사회의 우두머리가 마음도리를 알아서 조직원의 마음에 한마음으로 같이 해준다면 다 같이 사는 이치가 있겠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일테지요. 밝은 등불 켜들어 사방이 다 밝아지는 도리일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다 가섭이 되어 있으니 정말로 깨우친 사람이 있어 번쩍 불을 밝히면 전체에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으로 건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깨달은 뒤엔 보임을 해야 하나요

문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닫고 나니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과 깨닫고 난 뒤에라도 보임을 잘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에겐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김선학·대전 서구 월평동〉

답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 건덕지가 없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깨달음이란 자성의 부와 자성의 자가 딱 상봉하여 계합하는 것입니다. 참나를 발견했다, 견성했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부자가 계합이 됐다 하는 것은 첫째 일체의 내 경계가 바로 거기서 나온 줄을, 거기로 드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고 둘째 나와 너, 주객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셋째 일체만법의 나투는 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쳐지기는 합쳐졌는데 싹이 났을뿐 다 자란게 아니라면, 즉 일체 경계가 다 내 탓인줄 투철히 알아 행 속에서 여여하지 않다면, 또는 둘 아닌 도리, 만법이 나투는 도리를 여실히 꿰뚫어 보지 못한 바가 아직도 있다면 더 닦을 바가 있다고 하겠지요. 그걸 보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여여하고, 찰나찰나 만법이 들고나며 자유자재한줄 알았다면 돈오돈수라해도 맞겠지요. 공부하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돈오돈수가 맞다, 돈오점수가 맞다는 시비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이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이론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체를 항복받아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도리가 나올 때까지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직지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청풍료

圓覺山中生一樹 (원각산중생일수)
開化天地未分前 (개화천지미분전)
非青非白亦非黑 (비청비백역비흑)
不在春風不在天 (부재춘풍부재천)

三界猶如汲井輪 (삼계유여급정륜)
百千萬劫歷微塵 (백천만겁역미진)
此身不向今生度 (차신불향금생도)
更待何生度此身 (갱대하생도차신)

山堂靜夜坐無言 (산당정야좌무언)
寂寂寥寥本自然 (적적요요본자연)
何事西風動林野 (하사서풍동임야)
一聲寒雁唳長天 (일성한안려장천)

自從今身至佛身 (자종금신지불신)
堅持禁戒不毁犯 (견지금계불훼범)
唯願諸佛作證明 (유원제불작증명)
寧捨身命終不退 (영사신명종불퇴)

원각산 속에 나무 한 그루 있어
천지창조 이전에 꽃이 피었다네
그 꽃은 푸르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으며
봄바람도 하늘도 간여할 수 없다네
산당에 고요한 밤 묵묵히 앉았으니
적막하고 고요함 가득 본연의 세계인데
무슨 일로 서풍은 건듯불어 나무 숲 흔들리고
장천에 기러기 끼득끼득 이 무슨 소식인가
삼계에 오르내림 두레박줄 같아
백천만겁을 지나도 다 함이 없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내 지금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계율 범하지 않으리오니
오직 원컨데 모든 부처님 증명하신 가운데
결코 이 목숨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서원 간절 마음의 때 씻겨지는 느낌

해설 직지사 청풍료는 최근까지 창원으로 사용되다가 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리중이다. 팔작지붕에 정면 9칸 측면 5칸이며 건물은 총 93평에 이른다.

이 청풍료의 주련은 매우 서정적인듯 하지만 자신의 업장을 씻고 성불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사무친 내용이다. 첫 연이 암시하는 절대절명의 진리의 세계 속에 금생에 성불하겠다는 비원이 바로 둘째 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째연서의 수행과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은유는 시 읽는 맛의 극치미를 전해준다.

거기에 마지막 연에서의 불퇴전의 다짐이 이 청풍료에 배인 직지사의 수행가풍을 대변하는듯 하다. 기승전결로 잘 짜여진 이 내용은 그 뜻을 풀어 아는 것만으로도 세속인의 마음에 찌든 때가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주식회사 지희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 (서울사무소)
☎ (0331)283-2083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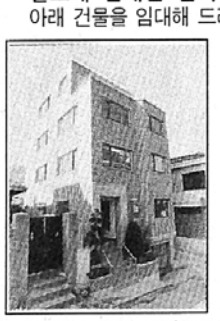
일할 곳을 찾습니다.
불심이 강한 41세된 독신 남자로서, 12인승 승합차와 함께 사찰에서 운전 기사 겸 처사로 일할 곳을 원합니다.
연락처 (0339) 375-2905

탈종공고
대한불교미타종 종정 법하
사찰명 : 영산암
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49-2
전 화 : 0443-46-8730
성 명 : 조신웅(무정)
본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1995. 8. 18
영산암 무정 합장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참불자, 도반을 모십니다
불교에 관계된 일이나, 포교당으로 쓰실 분에 한해 아래 건물을 임대해 드리고져 합니다
건물주소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18-2호
대지 70평 / 건평 40평 (현대식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공간 사용은 사용자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 745-2511 395-9193 369-2560 (주인 직접 상담)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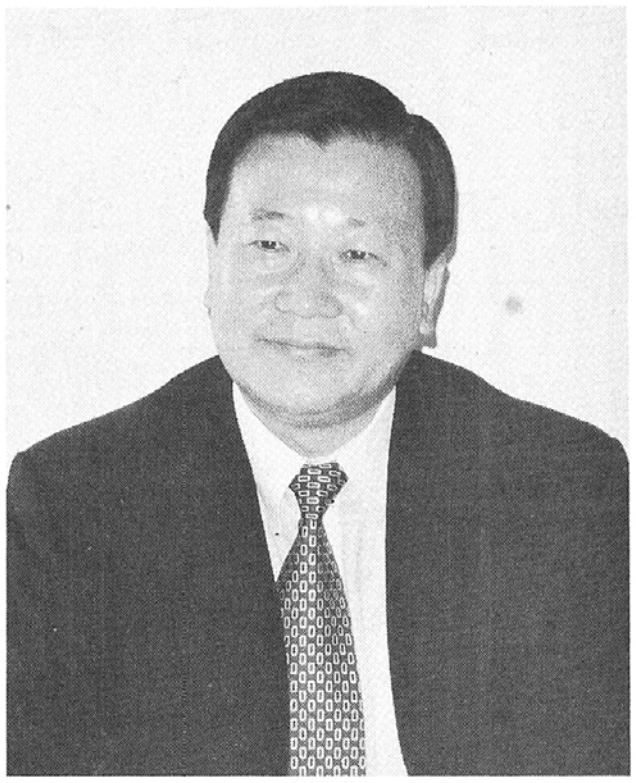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선착순5명)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신 교육통해 새시대 주역 양성"

선우도량서 '교육의 세계화…' 특강— 박 세 일 청와대 정책수석

지난해 청와대에 입성한 뒤로는 너무나 바쁜 생활로 말미암아 좀처럼 외부특강에 나서지 못했던 박세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모처럼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교육구상'을 주제로 1시간여 동안 특강을 했다. 박세일 정책수석은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신교육정책뿐 아니라 국가전반정책을 기초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2일 남원 실상사에서 박세일 정책수석을 특강직전 만났다.



수요 인터뷰

—어떻게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특강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인연이 궁금합니다.

▲수행자로서 올곧은 삶을 지향하는 스님들의 결사인 선우도량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대 총불회 출신으로 선우도량의 법성스님은 후배되는 인연도 있습니다. 마침 선우도량에서 교육을 주제로 한 수련결사를 하신다고 하고 또한 초청을 해주어 좋은 말씀도 들을겸 해서 왔는데 바쁘다보니 강의만 하고 가게 됐습니다.

약 력

- 1948년 경남 밀양 生
- 1970년 서울대 법대 졸업
- 1980년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교육개혁위원회 위원(1994~)
- 저서 〈한국경제의 이해〉〈한국사회와 시민의식〉〈교육 대 개혁론〉 등

획일적 교육지양 인성개발…山寺는 국민 도량

"개혁은 차세대위한 산고"…인내로 21세기 대비

—강단에 서다 청와대에 들어가셨는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겠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강의에 주로 이상론을 담았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책입안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현실에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점을 중시하게 되더군요. 더구나 사회전체 수준이란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수요자가 선택하는 교육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교육 구상'에서 교육의 세계화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왔던 근대화·산업화 시대(20세기)의 교육과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정보화 시대(21세기)의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얼마 안남긴 지금 세계는 경쟁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 교육개혁입니다.

양적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질적 전환의 시대,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종전의 제도와 관행,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도 마찬가집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관·교육원리가 나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본틀을 다시 짜자는 것이 '신교육'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지만 암기위주·입시위주교육,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등 내적인 충실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많이 뒤쳐진 이른바 '풍요속의 빈곤'이랄 수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신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첫째는 획일적 교육을 벗고 창의력 배양, 타고난 소질 개발, 인성개발의 다양화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육자가 선택한 교육내용을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선택의 교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규제위주에서 자율중심의 교육, 수월성(秀越性)과 보편성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앞으로는 멀티미디어 교육등을 이용해 미국·일본·북경 등의 가장 우수한 교수의 강의를 전국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차원의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개인 학교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단체 사이에 유기적·효율적 학습정보망이 구축되는 것이지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같은 교육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텐데요.

▲교육이야말로 21세기를 여는 핵심적 사회자본이라는 인식하에 교육의 틀을 바꾸는 데 드는 투자와 지원이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지요. GNP(국민총생산액)의 5%를 공교육비로 투자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는 지켜질 것입니다.

"시간나면 사찰 참배해요"

—문민정부도 지금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조계종은 지난해 '개혁'이 일어났고 개혁에 대한 열화와 같은 원력과 추진으로 개혁종단이 들어섰는데 개혁이 완성되기도 전에 지금 지지부진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개혁이란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란 미래의 차세대를 위해 현재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관례대로 해오던 것을 바꾸자는 개혁은 생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막상 몸으로 겪을려면 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더욱 의지를 가지고 단합하고 일반 사람들도 고통·불편을 참고, 개혁을 이끄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통령이 장로이고 내각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불교가 여러 면에 있어 정부로부터 차별받는다는 일종의 피해의식(?)같은 것이 불교내에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에 계시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는데 반해 불자들은 종교를 잘 나타내지 않아 그렇지 장·차관중에도 불자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 입안 수립에 있어 종교색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지요.

—실상사는 처음이십니까.

▲시간만 있으면 절에 참배 다녔을 정도로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청와대에 들어가서부터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절을 담고 삽니다.

실상사에 오니까 이렇게 훌륭한 산사에서 방학중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것을 배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장소, 우리 것을 알게 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사=이경숙 기자

나의 수행일기

이 정 규 〈남원 시장〉



"무소유의 마음으로 사세요"

아내 법문이 심금울려…불자다운 행실에 힘써

인간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불행이 없을 때는 종교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어느 순간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타인에게 어떤 역경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내가 처음 절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집 가까이에 있는 절에 놀이삼아 드나들곤 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그 절은 청룡사였는데 청아한 목탁소리, 산사의 아늑함, 절 건물의 웅장함, 절을 따라 신작로를 걷다보면 말없이 피어있는 들국화의 추억 등이 지금도 생각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바쁜 일상생활과 공직사회에서 활동하고부터는 절에 대한 기억을 어슴푸레 잊고 살았다.

그러나 60년대초부터 7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이 가난을 벗어나 오직 잘사는 길은 기계문명의 도입과 급속한 공업화 정책으로 양적팽창과 물질적 풍요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흐름이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만 보고 뛰어 갔다.



그 대가로 인간정신은 더욱 황폐해져만 갔다. 그 와중에서도 불교는 편견됨이 없이 대중과 가까이 하는 종교로서, 윤리도덕 확립과 번뇌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로서 그 본분을 다해 왔다는 생각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80년대초 어느날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획기적 전환점이 있었다. 고등학교때부터 불교를 믿어왔던 아내가 말없이 내준 "참고 인내하며 무소유의 마음으로 사세요" 라는 법문 한 구절이 어느 순간 다가와 나의 심금을 울리며 저절로 절의 문턱에 나 자신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 입문 초기에는 불교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신비감만 있을뿐 정립된 종교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에 혼란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느날 공직생활중 업무차 면사무소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험난한 고갯길이었는데, 사고 순간 차는 크게 망가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으나 나의 신체에는 큰 이상이 없이 기적적인 삶을 찾게 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종교를, 즉 불교를 다시금 생각케 보는 계기가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종교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깊이에 대한 공부가 하고 싶어 지면서 신앙심이 두터워져 갔다.

요즘 사회를 뭇 사람들은 물질만능의 팽배, 자기 몫만 챙기는 이기주의, 반인륜적 범죄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한다. 강력한 법적 제제와 반복적 의식교육이 강조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매스컴을 통해 사건 사고 소식이 우리의 귀청을 울리고 슬픔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이기주의와 사욕에서 비롯된다고 볼때 불교의 무소유의 정신이 모든 중생의 마음에 전달되어 청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 지금 이순간 지역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민선시장으로서 극심한 지역이기주의, 집단민원 등의 소용돌이와 서로가 극과 극을 달리는 대립 속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불교의 중용사상은 산적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오고 있다.

직장내에서는 책임자로서, 시민에게는 심부름꾼으로서 어떤 특정종교를 공개적으로 설불리 포교할 수 없지만 불교사상에 기초를 둔 정신과 마음으로 불자다운 행실을 유지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교의 참뜻을 스며들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말씀처럼 고귀한 정신세계를 마음에 담고 있을 때 무질서, 불심감, 부정부패, 인명경시, 각종 재난사고 등의 사회병폐도 사라질 것으로 믿고 있다.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8-8329
■호출기: 012-307-8329
박 석 언 합장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배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대 표 이 규 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범룡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옹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문 불사, 그외 다수 시설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사찰인수 증설에 참여하실 분
※ 휴게소 가든 매도분※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성업중)
• 대지 주차장 300평
신축 모텔 부지 1,000평
매도가 5억원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텔 증축 가능지
—농산물·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주차장 도로부지 120평 포함
연락처 집(조석)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 불교신자·독지가 환영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충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장지 요지
:계명산 석굴암 요사채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탑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불상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1층 방 3
35평형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현 3억 5천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증축, 요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신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스님, 독지가, 새사찰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

명음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렵다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쌀눈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6〉

保寧 勇禪師 示看經
(보령 용선사 시간경)

夫看經之法 後學須知 當淨三業
부간경지법 후학수지 당정삼업
若三業無虧則 百福俱集
약삼업무휴즉 백복구집
三業者 身口意也
삼업자 신구의야
一 端身正坐 如對尊嚴則身業淨也
일 단신정좌 여대존안즉신업정야
二 口無雜言 斷諸嬉笑則口業淨也
이 구무잡언 단제희소즉구업정야
三 意不雜亂 屏息萬緣則意業淨也
삼 의부잡란 병식만연즉의업정야

무릇 경을 보는 법(독경도 포함) 후학에게 보여 알게 하노니 마땅히 삼업을 깨끗히 하라

만약 삼업을 닦음에 이즈러짐이 없으면 백가지 복락이 함께 할 것이다.

삼업이란 몸·입·뜻이다.

첫째는 몸을 늘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되(좌 뿐아니라 행·주·와 포함) 존안(임금이나 부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한 듯이 하면 곧 신업이 청정한 것이며

둘째는 입으로 잡된 말을 하지않고 오욕에 이끌려 웃고 떠드는 말을 끊으면 구업이 청정한 것이며

셋째 생각과 느낌이 난잡하지 않고 온갖 경계를 물리쳐(고요히) 쉬게 되면 의업이 청정한 것이다.

"부처님 뵙듯 행주좌와 늘 단정히 하고 오욕 이끌려 웃고 떠드는 말 삼가해야"

內心旣寂 外境俱捐
내심기적 외경구연
方契悟於眞源 庶研窮於法理
방계오어진원 서연궁어법리
可謂水澄珠瑩 雲散月明
가위수징주형 운산월명
義海湧於胸襟 智燄凝於耳目
의해용어흉금 지악응어이목
輒莫容易 實非小緣
첩막용이 실비소연
心法雙忘 自他俱利 若能如是 眞報佛恩
심법쌍망 자타구리 약능여시 진보불은

속 마음이 이미 고요하고(적정에 들고) 바깥 경계를 함께 버려야 (마음이 적정하여 안팎 경계가 다가와도 허공에 새가 지나가듯 흔적과 동요가 없음)

바야흐로 진리의 깊은 근원에 계합하게 되며 두루 법리를 갈아 다할 것이니

이에 「물(성품의 바다)이 맑으니 마음 구슬은 빛나며 구름 (번뇌망상) 흩어지니 달(본성)이 밝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되면) 의혜는 흉금에 용솟음 치고 (마음 가운데 참뜻이 용솟음쳐 바다를 이루니 무량법문이 솟아짐)

지혜의 묏부리는 눈·귀에 응결(눈 가고 귀 이르는데 지혜는 산처럼 어릴 것이니 경계마다 이치가 따름)할 것이다.

문득 쉽다 여기지 말라. (이는) 진실로 작은 인연(공부인연)이 아니다.

마음과 법을 함께 잊으면(무심의 경지, 제법공상의 경지) 자타가 함께 이로우리라

만약 이와같이 할지면 진실로 불은에 보답함이 되리라.

右街寧僧錄 勉通外學
(우가령승록 면통외학) ①

夫學不厭博 有所不知 盖闕如也
부학불염박 유소부지 개궐여야
吾宗旨遠 以三乘法 而運載焉
오종치원 이삼승법 이운재언
然 或魔障 相陵 必須禦侮
연 혹마장 상릉 필수어모
禦侮之術 莫若知彼敵情
어모지술 막약지피적정
敵情者 西國則謂它 東夏則經籍矣
적정자 서국즉위타 동하즉경적의

무릇 배움에 있어 널리 하기를 꺼려해서는 안되느니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대개 빠뜨림과 같으니라.

불교의 깊은 이치는 삼승(성문·연각·보살승)법으로써 실어 나르지만(포섭하지만)

그러나 혹 마장(외도)이 범하려 들면 반드시 모멸(업신여김)을 막아야 한다.

막는 방법은 적정(상대의 사정)을 아는 것만 같지 못하다. (가장 좋다)

적정이란 인도에서는 베다경전이고 중국에서는 경서들이다.

故 祇園寺中 有四圍陀 外道 以爲宗極
고 기원사중 유사위타 외도 이위종극
又有書院 大千世界內 所有不可文書
우유서원 대천세계내 소유부등문서
竝集其中
병집기중
佛 具請讀之 爲伏外道 而不許依其見也
불 구허독지 위복외도 이불허의기견야
此土高德高僧 能攝伏異宗者 率由博學
차토고덕고승 능섭복이종자 솔유박학
之故
지고

고로 기원정사에는 네 베다경전(리그·사마·야주르·아타르바) 강원이 있었으니 외도는 이 공부를 최고로 알았고 또 서원이 있었으니 온 세상에 있는 여러 다른 문서들을 아울러 모아 놓았다.

부처님께서 함께 읽기를 허락하신 것은 외도를 항복받기 위한 것이지 외견에 의지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다.

이 땅의 고승대덕들이 능히 다른 종을 포섭하고 항복케 한 것은 대개가 박학한데 말미암은 것이다.

龍眼

여름 특집

해외 고승 지상법석

"탐욕·증오·망상·집착은

사사나 소바나 스님
〈태국 승왕〉

파라 사사나 소바나 스님은 라마 4세의 고문과 제6대 수도원장을 역임 하였다. 승왕으로서 태국불교를 이끌고 있으며 다수의 법문집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가 그 이념과 그것의 실천법을 가르쳐 준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간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에기 친근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통제된 시대에서는 극히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장 간단하고 대략적으로 배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상기하면서 무엇이 오늘날 불교라 불리어지고 있으며, 지난 2천5백년동안 적용된 부처님의 가르침의 결과를 낳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이들의 안식처는 부처님입니다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지혜로 일상생활중 쉼없이 수행하면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것까지도 공부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실천과 동떨어진 가르침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중 특이한 것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발원하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의 안식처는 부처님입니다. 이는 모든 이들을 계몽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무지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지도자 중의 한분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가르침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고양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개인 자신의 본성속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며 세상의 이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질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두번째로 법은 불교도들의 밑음속에 세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깨우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또한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한 열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며 탐욕, 증오, 망상의 세가지 망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이 나쁜줄 잘 알면서도 그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삶을 탐구하는 자세로 바라볼 수 있을때 우리는 단순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고통이나 슬픔 질병 그리고 늙거나 죽음에 대한 고통 따위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원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통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반면에 그것을 벗어나려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반갑지 않은 사실들을 모든 사람은 내면에 간직해 두고 있지만 이런 것을 알고있는 사람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고통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부분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어리석은 삶의 이상향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곳에 수 많은 고통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죽을 때까지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새장에서 벗어나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새장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사슬은 끊으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모든 욕망이 뿌리 뽑힐 때만이 고통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유이자 정신적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치 : 23.1cm) (5치 : 17.5cm) (1자 : 33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일만불 조성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 표 권 영 천 합 장

장인의 혼과 얼을 담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에서 구워낸 도자기불상 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해외 고승 지상법석 — 여름 특집

자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맹목적이 아닌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자기가 탐구하는 실천행입니다”

모든 욕망 뿌리 뽑혀야 비로소 자유로운 경지 도달

악한 행동에 고통따르고 선업 쌓으면 반드시 행복

인 자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적 정화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정화는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끊임없는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명상을 하다보면 인간의 모든 고통들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마음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불법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회에 참석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 절에 올 때 부처님에게서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조금전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 만큼 자신 스스로 불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대로 오계를 지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오계가 훌가한 승려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오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계는 어떤 외부의 힘보다는 스스로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계는 진실한 행복의 방향으로 한발짝씩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과와 보상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어떤 행동은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악을 행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선행을 하면 반드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또 다른 두드러진 점은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갖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이 적당한 것인양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가르침보다는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칼라마 사람들은 수 많은 종교의 교리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서 어떤 것들이 부적합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된 마음으로 탐욕과 미움,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끊임없는 자아성찰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요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제가 여기에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친절과 자비, 유쾌함과 평온을 배우는 것입니다.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마음은 매일 매일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얻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증오하는 사람에게 실천해 보세요. 그들 모두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와 미움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약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두가지 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적은 사랑이라는 탈을 쓴 감각적 집착입니다. 반면에 멀리 있는 다른 하나의 적은 증오심이 자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이 두가지 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비심도 좋은 덕목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냉정한 무관심을 털어내 보십시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줄 것입니다 이것은 잔혹함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약입니다.

이것 역시 두 가지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단순히 슬프다고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잔인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쾌함입니다. 유쾌함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을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사람들에 대해 무엇인가 아까워 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전해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유쾌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헌신하고 그의 삶에 조화를 이루는 친구가 많이 따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감정을 억제하며 시기심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약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의 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고 단순히 행복을 얻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고 또 다른 적은 이 유쾌함에 대한 권태와 혐오심입니다.

평온함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거나 혼자서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과 쓸데없는 잡념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와 침착함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조명해 줍니다.

이것은 산만함과 걱정을 치유해 주는 부처님의 약이며, 역시 두 가지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까운 적은 단순한 냉담함이며, 또 다른 먼 적은 일상생활에 있어 자주 일어나게 되는 탐욕과 분노입니다.

마음 속에 이 모든 덕목들을 잘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수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가치있는 점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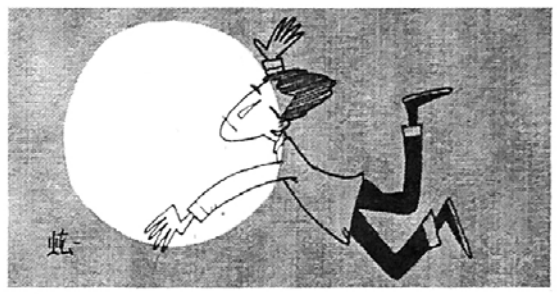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고통을 소멸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발짝씩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요함 뿐만 아니라 고요함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명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명상은 조용한 장소에서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물론 가부좌를 틀고 하되 편안한 차림으로 해야 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열망하는 바를 머릿 속에 떠올리고 집중해 보십시요.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즐거움과 행복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평온해지고 아무 것도 여러분들의 명상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게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친절은 증오·미움에서 나를 구하고
자비심은 고통받는 이웃을 구하고
유쾌함은 남의 성공을 기뻐하면서 얻고
평온함은 잡념을 버리면서 얻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7

양 형 진

공공(空空)

반야공 사상의 핵심은 법계가 연기(緣起)이므로 무자성(無自性)이고 무자성이므로 공(空)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오직 연기이고 무자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모든 것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즉 오온(五蘊)이 모두 공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하여 잠시 생겨난 것일 뿐이며 그에 따라 그것에 명칭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 뿐이다.

이러한 반야공의 이치가 체득되면 반야 바라밀을 행한다든가 행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터럭만큼의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품반야 봉발품(奉鉢品)에서는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는 보살을 보지 않고 보살이란 명칭을 보지 않으며 반야바라밀다를 보지 않는다. 또한 내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 있다고도 보지 않으며 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며 금강경에서는 “응당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한 법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봉발품에서는 “보살이란 것도 보살이란 명칭도 그 본성은 공이며,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또한 색을 여의고 공이 없으며 수상행식을 여의고 공이 없기 때문이다. 색은 바로 공이며 공은 바로 색이며, 수상행식이 공이며 공이 수상행식이다. 왜냐하면 명칭만으로 보리라고 하며 명칭만으로 보살이라고 하며 명칭만으로 공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물리학의 ‘진공’ 개념 공의 의미 못미쳐
집착해왔던 모든 존재 놓아야 지혜완성

이러한 공에 대한 논의는 대품반야경에 나오는 십팔공(十八空)에서 모든 존재나 생존체가 무자성이라는 법공(法空)이나 중생공(衆生空)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18공의 하나 하나를 소개하는 것은 이 글에서 별의미가 없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공공(空空)이나 필경공(畢竟空)은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공묘유나 색즉시공을 논의하면서 색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였다. 상대론적 양자역학에 기초한 현대물리학의 진공 개념이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자가 그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가능태라고 하였었다. 그런데 이 말에만 집착을 하게되면 우리가 눈 앞에 보는 존재 즉 색이 공에서 연유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이라는 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불교에서의 공의 의미는 일체 대립의 완전한 부정이므로 공이라는 것도 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공에 대해서도 색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집착하여서는 안된다. 이 공까지도 공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공공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공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필경공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이란 불교에서의 공의 의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공에서는 우리가 여지껏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고 집착해왔던 제존재를 놓아버려야만 하였는데, 공공에 와서는 그 공이라는 것마저 놓아야 한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의지하고 있던 색이라는 한 가닥의 밧줄을 놓아버리고 다시 공이라는 밧줄까지 놓으라고 가르친다.

이와 연관하여 바라밀다라는 말의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라밀다의 원어는 paramita이다. 이를 흔히 피안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도피안(到彼岸)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를 차안과 피안을 대비시키면서, 생사경계의 차안에서 열반의 피안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고 만다. 여기서 피안은 이 언덕과 저 언덕으로 구분되는 피안이 아니라, 모든 대립의 구도와 집착을 벗어난 완성의 피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령 반야바라밀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지혜” 혹은 “완성된 지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서만 얻어지는 자유이며 일체에 대한 긍정으로 연결되는 지혜이다. 공의 자유, 공의 긍정, 공의 실천의 의미가 완전하여질 때 비로소 완성된 지혜 곧 반야바라밀다의 상응(相應)한다고 하겠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라는 것이다. 일체에 대해 막힘이 없으려면 언제나 깨어있어야만 한다. 모든 예속과 부자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성자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대원불교대학에서는 정법의 기치아래
대중불교를 선도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 41 〉

지옥의 날들

지옥은 염마의 세계를 주재하는 염라대왕의 부하들이 마구잡이 강제로 송치하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중음(中陰)의 영식(靈識)이 이승의 49일을 다 지난 뒤 그 영식이 가고싶은 곳으로 가면 죄업이 무거운 중생은 지옥중생의 고통스러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가는 곳일 뿐이다.

결코 염라대왕의 부하들이 으르렁대며 쇠채찍을 갈겨대거나 욕을 퍼부어대거나 하는 것도 아닌 내생의 문을 스스로의 뜻이 선택할 따름이다. 그 선택이야말로 그동안 지어놓은 행적의 예누리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여섯개의 문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문도 있다. 그저 소박한 재색을 한 문도 있다. 작은 문과 큰 문도 있다.

바로 이런 문들이야말로 생전의 중생이 짊어온 카르마(業)의 결과를 조금도 가감하거나 첨삭하거나 하지 않은 채 그 문을 사용하는 의지를 막을 필요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 문 자체가 없는 상태처럼 문의 공간만 만들어져 있다. 여섯개의 문이란 바로 육도중생(六途衆生)의 하나로 태어나는 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7일동안 7명의 재관관이 있었거니와 여기에 3명을 더한 10명의 재관관 중에서 아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재관관이 3명이나 있다. 이들은 한번 더 고통인의 재관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중생으로 태어나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한 재관을 하게 된다.

이다. 그리고 오도전륜왕은 바로 서방정토의 주세불(主世佛)인 아미타불의 화신인 것이다.

바로 이런 보살과 여래들로 구성된 저 세상에의 탄생을 결정하는 심판의 본질은 지옥 아귀 수라 축생계의 고통이나 인간계의 상대적인 고통조차도 자비의 세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섯개의 문기둥 주련(柱聯)에는 다음과 같은 시 한 구절들이 눈에 띄도록 씌여있다.

'어찌 날 저물어 행하는 바와 받는 바가 물이겠느냐. 바른 길 앞에 불빛이 하나 둘 밝혀지누나.'

'그대 이 문이 처음이 아니라 이 문턱 닳도록 드나든 단골손님 이어라.'

'그대가 그대라는 이름 뿐일진대 그대가 받는 고통 또한 이름 뿐이니라.'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나 지옥의 억만겁이 한 티끌의 찰나임을 어이 모르랴.'

'부처와 보살이 울고 계신데 어찌 중생의 고통이 그대로이랴.'

'고통이 열반의 꽃이니라. 그대는 그 꽃밭으로 주저하지 말고 갈지어다.'

'이 문기둥 뒤에는 어머니가 계시니 그대가 다시 어린 아기가 되리라.'

이런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시인

나위가 아니었다. 그의 생전은 거의 문자와의 인연이 없었다.

남각만이 아니라 남각과 동행한 어떤 중생도 순무식장이였다. 그런데 그가 이 문기둥의 한 문을 통과하였다. "이 문을 지나감은 장차…"를 새김질하면서.

그런데 여섯개의 문을 통과한 중생들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서로 다른 길을 감으로써 각자의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옥은 결코 영원한 지옥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곳을 벗어나서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는 전생(轉生)을 반복한다.

아니 천상계의 천인(天人)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락이 다한 뒤 다른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감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여섯 세계 자체가 누구나 드나드는 윤회의 한 숙지(宿地)인 것이다.

남각 일행은 그런 윤회로서의 지옥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이 가는 갈임에 틀림없으나 또한 그들 자신이 가야할 길을 누군가가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 누구란 그들 자신의 업보(業報)이다.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하루동안 가는 거리가 1유순이라면 2리반(半)쯤에 해당한다.

이런 길이의 단위로 몇만유순을 지나는 나그네가 되어 삼악도(三惡道)의 가장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삼악도는 지옥, 아귀, 축생의 세계이지만 이 삼악도의 고통조차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계와 함께 인간계와 함께 임시적이다. 또한 아수라계는 삼악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분류한다. 불이와 합두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 일종의 독자적인 고통의 세계이다.

하지만 이런 중생계의 각 세계가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가령 천상계의 수명이 4천세인 것과 달리 지옥에서의 죄업이 깊은 중생은 몇번이나 죽고 태어나기를 거듭하며 받는 지옥의 고통을 1억조년이나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옥에서는 안락사(安樂死)란 단 한번도 허용되지 않는다. 죽음까지도 가장 혹독한 형벌의 고통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지옥은 대체로 8개로 나누어지는 단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현세의 지옥, 그러니까 지옥계의 하나인 고지옥(孤地獄)이 있을 수 있는 사바세계의 지옥과 지옥계의 그것은 다르다. 사바세계의 밑 감옥이야 기껏해서 다섯길 정도의 지하감옥이지만 지옥계의 그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지하 1만2천 5백리나 깊은 곳에 첫번째 지옥인 등활지옥(等活地獄)이 있다. 그 아래로 흑승(黑繩)지옥, 중합(衆合)지옥, 규환(叫喚)지옥, 대규환지옥, 초열(焦熱)지옥, 대초열지옥, 아비(阿鼻)지옥이 이어진다.

이 지옥들은 8열(八熱)지옥 혹은 8대열지옥이라고 통칭하는데 이에 대칭되는 8한(八寒)지옥은 이를테면 남극이나 북극의 혹한으로 된 지옥이지만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마도 이런 사실은 지옥계에 대한 상상이 폭염의 인도에서 발생함으로써 인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남각은 그의 동행자와 함께 점점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은 뜨거움으로 채워지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옥으로의 이 선택은 그가 바라던 것이었으므로 누구보다 그런 지옥에 가까워지는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었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이제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

"뜨거워! 뜨거워!"

이런 소리가 하나하나 발악으로 바뀌어 지고 있었다.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옥은 결코 영원한 지옥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곳을 벗어나서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는 전생(轉生)을 반복한다

"이 문을 지나감은 장차 이문을 때려 부수기 위함이요, 이문 이후의 세상을 불태워…"
남각은 동행인 강도 살인죄의 대머리 후신과 지옥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였다



단말마(斷末魔)란 말마(末魔:말마)가 잘려나간다는 뜻이겠다. 인간이나 동물의 육체에는 특수한 극소(極少)부위가 있다. 일종의 급소이다. 바로 그 부위가 말마인데 그 말마를 조금이라도 다치면 바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급소이기보다 죽음의 구멍[死穴] 또는 죽음의 마디[死節]이라 한다.

"앗 뜨거워!"

하고 외치면서 단말마의 비명을 질러대며 길에 쓰러져 나뒹구는 자도 하나둘 생겨나는 것이었다.

그런 때 남각이 그 단말마의 비명으로 나뒹구는 자를 그 자신의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워 좀더 참아야 한다고 독려하는 것이었다.

남각에게는 그의 본성(本性) 그대로 어떤 것도 혼자 가지지 않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성정(性情)이 있다. 그는 생전에는 어느 섬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구한 보물도 동료인 뱃사공들과 고르게 나누었다.

심지어 사바세계 조선 황해도 연평도에 파시(波市) 때의 미모의 작부조차도 그 미모의 여체를 독점하거나 소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작부를 주인 없는 존재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혼자 독점하는 일이야말로 그 아름다운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제법 바다 위를 떠도는 동안 터득한 어떤 철학적이기까지한 관단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신념에 이어져서 동행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아무리 뜨겁더라도 이 뜨거움에도 익숙해질 터이지…. 자네도 나도 이런 뜨거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힘을 내세.

"그러는 자네는 왜 이런 지옥의 길을 택했단 말인가? 뜨거워!"

그림 · 조향숙

유족의 추선공양(追善供養:망자를 위한 유족의 선업)이나 중음의 마지막 기회에 기적에 가까운 정신적 변화에 의해서 생전의 악업을 어느 정도 탕감할 수 있을 경우 바로 그런 처지의 중생을 재심하는 것이다.

100일째 되는 날에는 평등왕, 1주년이 되는 때에는 도시왕, 3주년이 되는 때에는 오도전륜왕이 그런 재심을 맡는다. 지옥과 아귀계로 가게 된 중생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재심의 재관관 역시 근원적으로 고통과 난관을 구제하는 보살행의 주인공들이다. 평등왕으로 화신한 것은 관세음보살이고 도시왕의 모습으로 된 것은 대세지보살의 시가 아니었다. 아무나 쓰고 싶으면 써서 붙인 것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것들은 서로 짝이 맞고 귀가 맞는 것도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게 자유분방한 뜻으로 되어있었다.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수 많은 것이 여기저기 씌여져 있다가 하나하나 정리된 뒤 몇개만이 남겨져 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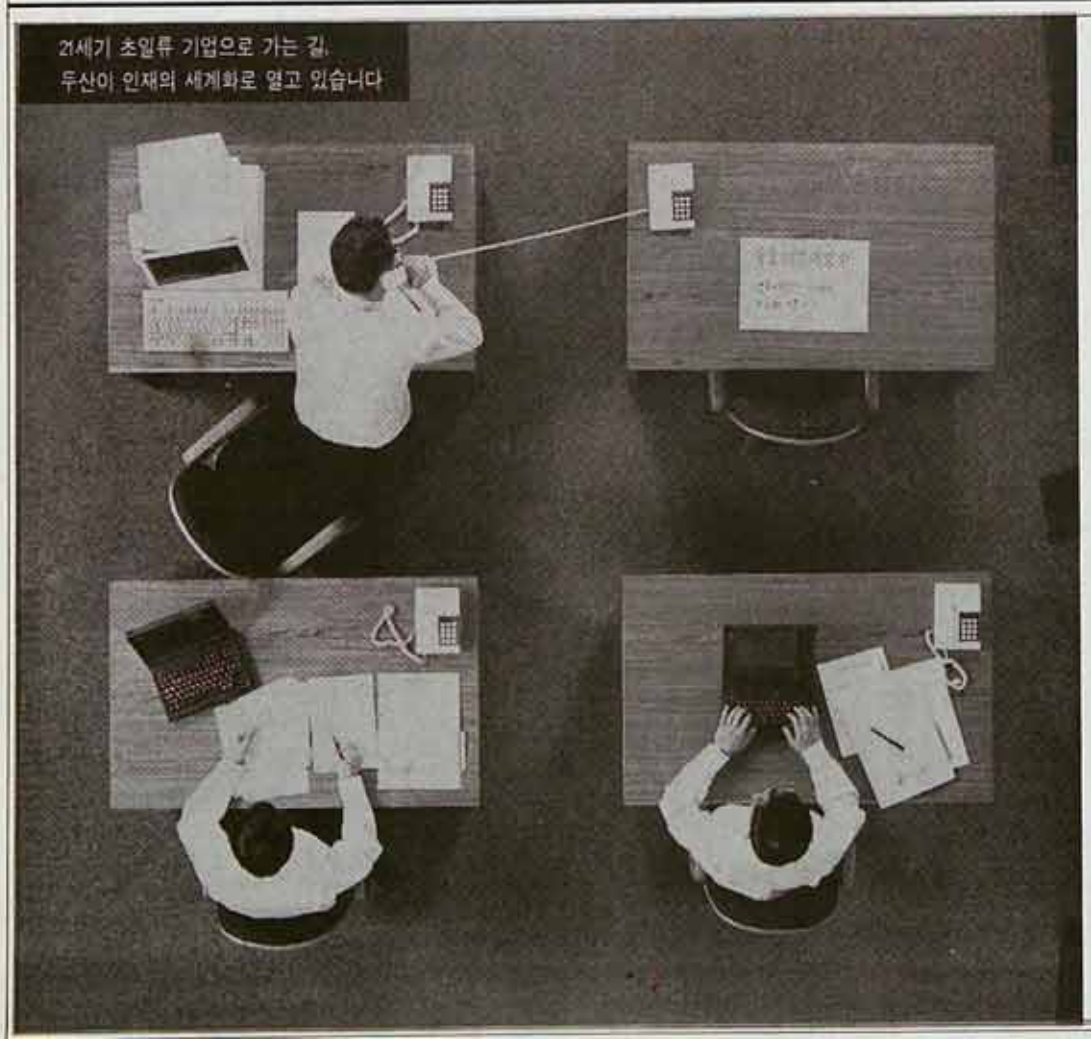
그것들은 굳이 재관관들의 지엄(至嚴)한 표어도 부처의 설법 한 대목도 아니었다. 어쩌면 여섯개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의 마음이 드러낸 말들인지 모른다.

남각도 이 문 가운데 한 문을 통과했던 것이다. 그는 한 구절의 시 따위를 지을 시를 보는 것만으로 그것을 해득(解得)하는 놀라움을 보였다. 그 놀라움에 또 하나의 놀라움을 더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 무식장이의 입에서도 한 구절의 시가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이었다.

"이 문을 지나감은 장차 이 문을 때려부수기 위함이요, 이 문 이후의 세상을 활활 불태워 잿더미 날리려함이 아닐진대 어찌 내가 이 문을 지나가리오."

남각은 그 동행인 몇번의 강도살인죄의 대머리 후신(後身)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인재로 이어온 100년
일류로 나아갈 100년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100년, 도전100년
두산

'귀명삼보의 이해와 실천' 한국불교연구원 강좌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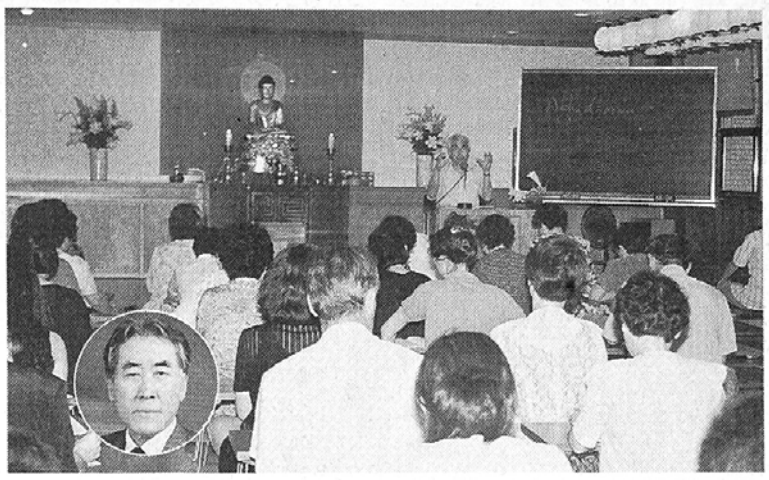
"신행의 바탕…목숨건 믿음 강조"

'진리배워 깨닫겠다' 대승불교의 회향처

불자들은 흔히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작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이 지난 17일~23일 서울 개포동 연구원법당에서 마련한 '귀명(歸命)삼보의 이해와 실천' 주제의 불교기초교리강좌는 '귀명삼보'의 의미와 실천방법을 명확히 제시,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강연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동국대 정병조교수가 지난 19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三寶觀의 성립과 변천'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원내는 같은 주제로 강연한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는 종교가 성립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창시자인 교조, 가르침인 교리, 그리고 신도들의 모임인 교단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의 개념은 종교학에서 말하는 3가지 성립요소와 같다. 즉 종교의 창시자인 교조(敎祖)를 의미하는 불(佛), 교조가 설한 교리의 내용인 법(法), 교조를 따르는 신도 단체를 의미하는 승(僧)이 그것이다. 불교의 삼보는 불자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근본이자 실천행이다. 삼보를 존중하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생의 어지신 어버이인 부처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일깨워주는 진리인 법,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후대에까지 지혜의 등불을 전해야 하는 신도들… 그들은 불교의 바탕이기에 보배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부처님은 모든 깨달은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 교조의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으며, 삼보 중에 진리의 말씀을 담은 법보를 가장 중요시 한다.

그리고 '귀의'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중생의 여러 감관기관이 한마음(一心)에서 나왔으므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 근본인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은 '자각(自覺) 각타(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이라고 불려지는데, '스스로 깨닫고 있는'면에서 보면 깨달은 그 힘으로서의 지혜가 본지(本旨)를 이루고, 또 '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타의 면에서 말하면 자비가 부처님의 본지를 이룬다. 또 그 지혜와 자비 두 가지가 다 원만하게 구족된 분으로서 보면 대지(大智) 대비(大悲)의 양면이 다 원만한 분을 일컫는 말이다.

'법보'에서의 법(法)이란 '의지하는 것' '지탱하는 것'이란 뜻으로 '진리' '가르침'이라는 용법 외에 '성질', 즉 어떤 현상을 성립시키고 있는 특성 및 그러한 성질을 지닌 존재 하나하나를 '법'이라 부르고 있다.

좁은 의미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성언(聖言)으로서 이것을 아함(阿含)이라 하고 가르침의 기본선이 된다는 의미로서 경(經)이라 한다.(형식적으로는 如是我聞으로 시작되어 信受奉行으로 끝난다) 대승불교가 성립하고 난 뒤에는 '아함'이 대승경전에 대한 원시불교성전을 가르키는 명칭이 되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제자나 후세 사람들이 경의 뜻을 해석한 논(論; 또는 法의 해석을 의미하는 아비달마라고도 함)과 교단의 규칙을 집성한 율(律)이 있으며 경 율 론을 합해 삼장(三藏)이라 부른다(藏이란 全集의 뜻). 이것이 불교성전의 전부이다. 삼장은 또 대장경, 일체경(一切經)으로 불리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기에 맞게 설하는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서 가지가지의 교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8만4천의 법문(法門)'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승'은 승가(僧伽)의 준말이다. 교단은 네 그룹(四衆)으로 형성된다. 즉 출가 수행승인 비구, 출가 여성수행자인 비구니, 재가 남성신자인 우바새(優婆塞), 재가 여성신도인 우바이(優婆夷)가 그것이다. 또 출가자 가운데 미성년 남자를 사미, 미성년 여자를 사미니·식차마나(式叉摩那)를 포함한 칠중(七衆)으로 나누기도 한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생활의 자세를 배우고, 가르침을 근본으로 마음을 지키며, 교단의 청정한 풍토를 잇기 위해 삼보에 귀의해야 한다. 교단의 각 구성원은 삼보를 중심으로 한마음(一心)의 본원을 간직하면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길로 나아가는 화합교단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승가는 바로 화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출가와 재가 수행자들은 각자의 뼈를 깎는 수행에서 얻어지는 고고한 정신의 빛을 이사회 속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삶의 현장은 대승불교의 회향처(廻向處)가 돼야 한다. 때문에 불자들은 생활현장이 곧 보살정신을 함양하는 실천도량이란 자부와 긍지로서 일상 속의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폭력의 장 *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이 항 원



이근후 건강칼럼 <31>

스트레스장애

갑작스런 사고이후 공포반응이 성격 변화

삼풍아파트 붕괴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는 희생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설혹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장애의 심각성은 대단하다. 이런 악몽같은 스트레스를 받고도 결과가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다분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의 행동적용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란 의학적인 주장과 재앙의 지각은 주관적으로 개인에 의해 판단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생존자들 가운데 대개 25% 수준의 사람들이 급성스트레스장애를 앓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

우선 삼풍상황에 대입시켜 보라. 어떤 형태의 정서와 행동이 이어질까를 한번 검토해 보라. 모르긴 해도 가상적인 상황이란 것을 염두에 둔데도 생각하기 조차 싫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사건은 전혀 타인에게 일어날 문제이지 나에게는 안일어나는 것이라고 회피할 수도 있다.

또다른 반응은 정말 내가 땅속에 갇혔다는 상상때문에 전율스런 경험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던 행동은 결국 자신의 유기체를 살아남도록 배려하는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 상황이라면 그보단 훨씬 심각한 공포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상황은 자동차사고나 비행기사고 기차와 배사고와 같은 교통사고, 홍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이번과 같은 인위적인 참사등이 모두 포함된다.



큰일을 당하고 나더니 그사람 인생관이 달라졌더란 말을 우리들은 쉽게 한다. 긍정적으로 성격이 변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급성스트레스를 받고나서 장애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격의 성장쪽으로 변했다는 뜻이다.

장애를 일으키는가 아니면 성숙한 과정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분기점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자신이 갖고 있는 면역체계나 방어의 수단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압되면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이런 공포의 지속은 무기력을 낳고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인격의 와해를 일으켜 적게는 신경증적 증상 크게는 광기로 연결되는 정신장애로 이어지게 된다.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랑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월간 대중불교 9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미움의 정치 / 정경희
특집 20주기 추모특집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과 원력/이용림
특집기획 우리 속의 왜색문화
'우리' 만화를 위한 변호 / 정준영
화두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 / 박영하
개발의 빈곤과 수입의 과잉 / 김남석
함께 이루는 칭정국토
생명의 모태, 바다가 죽는다 / 성낙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얼과 문화 경주남산의 감실 부처/김효형·김성철
폐사지를 찾아서
강화 봉은사지 / 김상영·최태선
불교와 민속 불교와 꼭두각시놀이/김종대
전통과 오늘 사이
함께 사는 사회의 불가명절/서동석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건축사학자 신영훈 씨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6)/삼성각
바른 기도와 발원 / 이제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8)
대승의 꽃, 보시 바라밀 / 용타
교리산책/업(9) 정업과 부정업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9)/지장보살(2)
지옥은 실존이다 / 일지
나의 수행담
물러설 수 없는 깨침의 세계로 / 대원성
스님께 듣습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곧 극락이지요/태원·김희균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푸른 대쪽 같은 청화 스님 / 효림
큰스님의 그늘
양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정복주
포교당 일기 부처님의 다이어트 법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정복주·이시운·정춘석
해외 불교 읽기
환생의 나라, 티벳(3) 영성과 비극의 나라/김선정
모스크바의 원불교 한글학교
버려진 땅에서 일어선 고려인을 위하여/김희균
봉주우르, 길상 토요 전각교실 / 지묵
뻗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불교생활문화 터전 닦는 노원구
법륜왕사 / 오경숙
신행단체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 산해원지부 / 청응수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저자와의 대화 '삼국유사 현장기행' 펴낸 이하석 씨

"삼국유사는 한민족 삶의 거울"

"7백년 時空넘어 일연스님 '우리땅 사랑' 다시확인"

도리사·영취사지등 60여곳 설화·민담·전설 소개

"우리 것을 찾자는 의도에서 시작은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처음엔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뒤적여 나름대로 지도를 그려서 표시도 돼있지 않은 풀더미를 헤쳐나갔습니다."

〈삼국유사의 현장 기행〉(문예산책 펴냄)의 저자 이하석씨(영남일보 생활부장)는 출판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의 어려움을 먼저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현장을 답사하면서 단서가 잡히고 삼국유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때의 반가움과 기쁨도 매번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씨의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려주듯 삼국유사의 역사현장을 재구성한 것. 71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김달진문학상과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시인답게 7백여년이라는 시간의 까마득함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고 있음이 돋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답사자의 감상으로 치장한 현장기행이 아니다. 도리사 영취사지 고선사지 등 60여곳에 담겨있는 설화와 민담 전설을 소개하고 그곳의 문화예술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유적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의 보존상태를 진단해 독자들을 '우리 것 사랑'으로 이끌어들인다.

"어차피 세상만물이 성주괴공(成住壞空)이듯, 옛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지워집니다. 그 지워짐을 나쁘다, 좋다고 말하기 이전에 변화하는 순간들을 챙기는 의식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정신의 자양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씨는 서간으로부터의 탈주를 시도해 일연스님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유적지 곳곳에서 확인한 것은 일연스님의 '우리 땅 사랑'이었고, 그래서 일연스님의 업적이 새삼 큰 무게로 다가옴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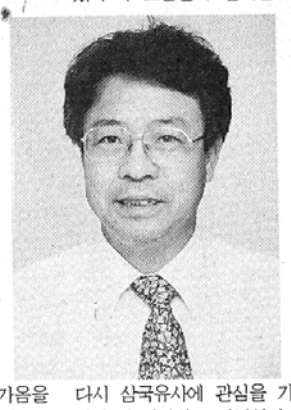
"삼국유사가 단순히 자료만을 모은 역사책이 아니라 현지 답사를 거쳐 꼼꼼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70을 훨씬 넘은 노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혹 저작팀에 작업을 맡기고 감수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땅에 대한 사랑없이는 엄두도 못낼 크나큰 유산을 우리들에게 남기신 것이죠."

아울러 삼국유사는 일연스님의 땅사랑의 겉모양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씨는 "유사 속에는 대성인을 뱀으로 등장시켜 높음과 낮음을 가늠하는 관념을 깨뜨려버리는 등 스님의 품넓은 불교관과 역사관이 배어있다"며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다시 삼국유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국유사에는 한국인의 삶의 원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과 인식의 근원적인 것들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정성운 기자





◇이하석씨는 〈삼국유사〉의 불교관과 역사관에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둠의 빛으로…

강자우 편저



인간의 잘못된 행위중에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낙태문제이다. 종교단체에서는 낙태반대운동을 벌여왔으나, 정작 불살생계와 자비실천을 강조하는 불교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미미하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는 낙태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 낙태에 의해 사라져간 영혼들에 대한 사죄와 천도의 기원이 종교·사회적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획의도.

'장수멀죄 호제동자다라니'에서도 "태아를 죽인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하고 천도공양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이고득락한다"고 이른다.

'태아의 사망과 천도' '임신손실' '사람의 탄생과 태교' '불교경전에 나타난 태아의 비밀' 등 4편의 글로 구성했으며, '53존불' 법요집도 실었다. 〈밀알, 5천5백원〉

낙태 참회법 경전통해 제시

화제의 책

인식론·논리학

사이구사 미쓰요시 엮음



한때 불교와 인식론 논리학은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종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문의 방법인 인식론을 탄생시키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교와 초기대승불교 중기대승불교 후기대승불교의 인식론으로 나눠 인식성립의 문제, 타당성의 문제, 진리성의 문제, 인식을 표현하는 말의 적용범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불교의 인식·논리학적 차원 상술

'불교학 세미나' 둘째권으로 나온 〈인식론·논리학〉은 각각 4편의 인식론과 논리학에 관한 논문을 실어 인도불교에서 발행한 두 분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식론 부문에서는 원시불교와 논리학 부문은 중기대승불교, 후기대승불교, 인명사상, 비교논리학서설로 구성했으며 불교논리학인 삼지작법을 서구의 형식논리학과 대비해 설명하고 있다. 〈심봉섭 옮김, 불교시대사, 8천원〉

역경원, 심밀해탈경등 6권 발행

고승문집 1권도 펴내

최근들어 활발한 편찬작업을 벌이고 있는 역경원에서 6권의 경전과 1권의 고승문집을 동시에 펴냈다.

간행목록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밀해탈경:유가출의 근본경전으로, 깊고 비밀히 상속하는 진리를 행석하고 미혹에서 해탈케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부모은혜의 지중함과 효의 공덕을 설한 우란분경 효자경 등을 포함시켰다.

△십력경:불교도의 수행지침과 일상적인 수행의 중요한 덕목들을 간추린 팔대인각경 사십이장경을 포함하고 있다.

△무소유보살경:부처님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 현실세계의 도덕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지세경 육취윤회경 대안반수의경 등 포함.

△반니원경: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후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과거 7불에 대한 설법을 담은 불설칠불경 비바시불경 포함.

△지혜와 자비의 말씀(숫타니파타):불교최초의 경전으로,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과 상황을 전해준다. 불교승려 나아가 세나와 그리스왕 밀린다와의 불교교리에 관한 문답을 기록한 밀린다왕문경을 함께 실었다.

△보조국사집:권수정혜결사문 수심결 진심직설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문 염불요문 계초심학인문 화엄론절요서 법집별행록절요사기를 수록.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소설 선	고 은	창작과비평사
2	하산	홍 주	불지사
3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4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5	달마의 제자들	고우영	불지사
6	선 100문100답	진 제	파란나라
7	나를 보게 하소서	현 장	민족사
8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9	영가천혼법어	석성우	토 방
10	알기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연꽃의 향기(선용 편저)=지혜제일 사리불, 설법제일 부루나존자 등 부처님 10대 제자의 일대기를 각 경전에 나타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꾸몄다. 〈불교세계출판부, 4천5백원〉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복을 받는 비밀(한국불교선농회 편)='효행정신' '한국인의 삶' '불교의 명절과 행사' 등의 주제로 법흥 도성 각성스님등의 법어를 묶었다. 5, 6편에서는 대보부모은중경과 목련경의 원문과 한글번역 해설을 붙였다. 〈이화문화출판사, 8천원〉

▲기독교와 선(라즈니쉬 지음)=기독교 믿음의 허구성과 기독교 전략의 기만성을 질타한 기독교 비판서. 라즈니쉬 특유의 해박한 지식과 재치있는 예화를 곁들여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원제는 '기독교와 선-가장 치명적인 독과 모든 독의 해독제.' 〈정신문화사, 7천원〉

'만다라' '여보게, 저승갈때…' 등 불서 '종로서적 베스트 셀러 50년전' 전시

1980년 김성동의 〈만다라〉, 1993년 석용산스님의 〈여보게,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지〉의 불교도서가 '종로서적 베스트 셀러 50년전'에 베스트셀러로 선정, 지난 10일부터 종로서적 6층에서 전시되고 있다.

1945년도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의 인기서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소설, 수필, 시등 50권이 선보이고 있다.

9월10일까지 개최될 '베스트 셀러 50년전'에서는 1962년 일엽스님의 '청춘을 불사르고'도 볼 수 있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한국불교시선

경전으로 이름붙은 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불교 1천 6백년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값진 가르침을 전하는 저술들은 수없이 많다. 얼핏 서가를 일별해보니 옛 선사들의 어록은 물론 나와 함께 이 시대의 공기를 호흡하며 살았던 스님네들의 법어집도 십여권이 넘는다.

그 책들은 언제 펼쳐보아도 누런 종이에 알알이 박힌 검은 활자들이 꿈틀대는 것만 같다. 가끔은 내 눈이 착시를 일으키는 것인가 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다. 말씀은 말씀을 떠나서 있듯, 활자 또한 활자가 아니어야 한다. 모름지기 나에게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 책이 참다운 불서가 아닐까 하는 싱거운 생각도 해본다. 싫지 않은 상상이다.

경·율·논 삼장에는 끼이지 못하지만 해를 더해 묵어갈수록 빛을 발하는 책이 있다. 비록 소품이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는 〈한국불교시선〉이다.

책 뒤표지를 열어보니 벌써 20여년전, 1973년 세상에 나온 책이다. 한국불교문학회가 편찬했고, 서정주 김어수 고은 송혁 등 제씨와 석지현 스님이 편집위원으로 참석해 동국역경원에서 펴냈다.

뒷장부터 소개함은 불교문학이라는 등불이 요즘에는 그 빛이 가물가물거려 당시의 이 책을 펴낸 작업이 너무 새삼스럽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불교에도 이만한 문학적 자산이 있었음을 은연중 자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다.

문학에는 문외한이지만, 현대시의 시발을 만해의 〈님의 침묵〉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 타당성을 따질 계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이, 또 그것을 따르는 불제자들의 노고가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을 일구어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시집도 만해를 비롯 그 이름만 대도 알만한 시인들의 작품이 수록돼있다. 작고한 시인으로는 오상순 조지훈 최연희 김달진 김광섭 신석초 등등. 박희진 신동집 오규원 이형기시인들을 해방전과 해방후의 시인들로 나눠 무려 76명의 시인이 등장한다.

이 책 편집자의 말에 따르면, '시선'은 70년 7월에 창립한 한국불교문학가협회의 첫 사업으로 간행했으며, 불교와 연관을 가진 작품 3편씩을 자선(自選)토록 해 실었다고 한다. 작고시인의 작품은 편집위원들이 선정했다.

이쯤에서 보면, 70년대 초반까지 우리 시단의 현역시인 대부분이 창작의 자양분을 불교에서 섭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는 언어를 빌어서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지만, 한편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언어로부터 해탈한다. 시의 묘미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 시인들이 불교에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시집은 불교와 시가 만나는 결정체이다. 120여편이 넘는 작품 가운데 가끔 아무데나 열어 읽곤 한다. 뭘 얻는다, 깨닫는다 하는 생각 이전에 웬지 편안하다. 나의 감상법이다. 조지훈시인의 '古寺'를 옮겨본다.

木魚를 두드리다/졸음에 겨워//고오운 상좌 아이도/잠이 들었다//부처님은 말이 없이/웃으시는데//西域萬里 人길/눈부신 노을아래//모란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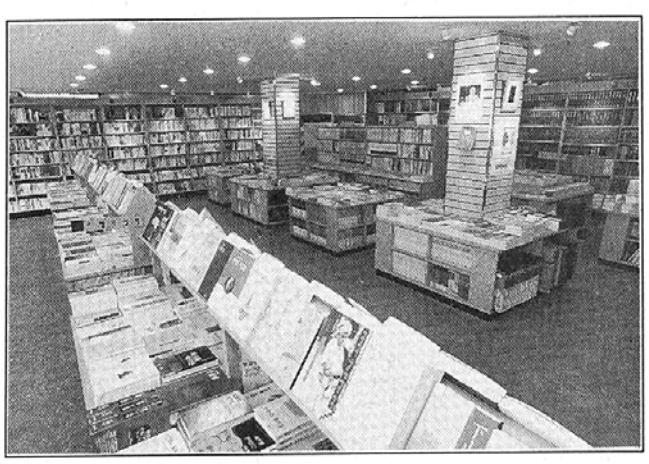
김 명 윤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만해·조지훈시인등 76명 작품 마음 편안케하는 '언어의 법당'

불의가득, 법향가득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의 성장은 곧 불교문화의 성장입니다



독서회원 가입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서점 발행 신간안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의 충직한 서비스로 알찬 독서생활을 만끽하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님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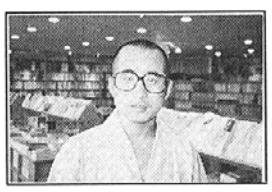
통신판매

미처 회원가입을 못하신 고객 여러분도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적을 신청해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며 우송료는 본 서점이 부담합니다.



종로에 나오면 항상 이곳에 들러요.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고르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김 희 주 (학생)



저야 뭐, 항상 내 집처럼 드나들죠. 책방 여시아문과 같은 문화공간들이 어서어서 자라서 불교발전에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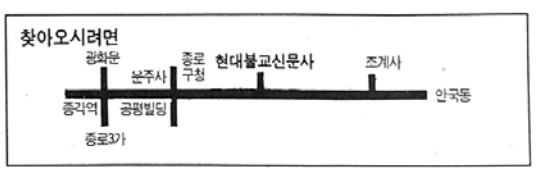
(불교극단「바람」대표)



이렇게 번듯한 불교 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참 좋으네요.

오 진 하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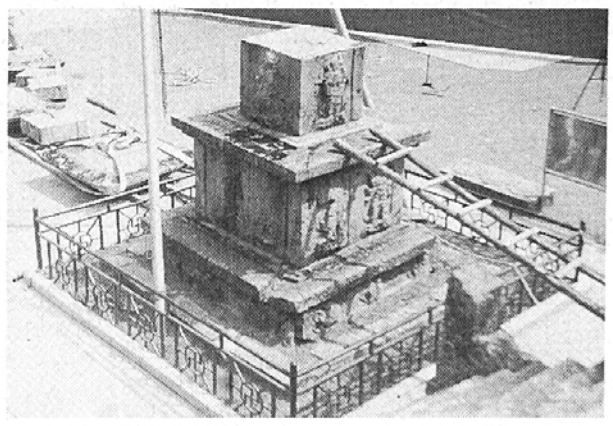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찾아오시려면


화엄사 석탑서

신라寫經 추정 종이뭉치 발견

청자양이병·청동합등 사리장엄구 8종 29점도
판독 6개월 이상 걸려… 스님이 만든 종이 가능성



◇화엄사 서오층석탑. 보물 133호이며 동탑에 비해 기단과 탑신부에 장식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해체복원중 중요 성보가 발견된 직후의 모습.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 서쪽 5층탑(보물 제133호)에서 통일신라시대때 종이에 쓴 화엄경 사경(寫經)으로 추정되는 종이 두루마리와 청자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청자양이병(靑磁兩耳甁)이 발견됐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21일 화엄사 대웅전 서쪽 5층 석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하던중 두루마리 종이뭉치를 비롯해 청자양이병, 녹색사리병, 청동합 등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8종 29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종이 두루마리와 청자병은 탑신석 1층 윗부분에 각각 가로 33㎝, 세로 10㎝ 크기의 장방형홈과 직경 22㎝ 가량의 원통홈에 들어 있었으며 청자병에서는 사리 22과를 담은 녹색사리병과 청동합 2점, 수정옥 1점, 목제 장식류 1점, 유리구슬 등이 함께 발견됐다.

특히 종이 두루마리의 경우 제작시기와 사경 또는 인쇄본인지 아니면 시주자의 발원문인지의 여부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사경으로 확인될 경우 신라시대의 사회상과 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당시 종이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은 "9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화엄사 석탑내에서 발견됐으므로 9세기 중엽 이전의 유물이 분명하고, 크기와 두께로 볼 때 인쇄물이기 보다는 손으로 불경을 베껴 쓴 사경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물인 제2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통일신라때의 종이류는 지난 66년 불국사 석가탑 보수공사때 나온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일제시대때 발견된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白紙墨書)대방광불화엄경 등 2종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루마리의 지질과 내용 그리고 사경인지 목판인쇄본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엔 지난 89년 일본 기술진이 비슷한 상태로 발견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의 보존처리에 반년 걸린 점에 비추어 최소한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종이 두루마리는 우선 겉에 묻은 먼지를 털고 X선 촬영을 통해 절첩본인지 두루마리인지를 밝히는 등 유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습기량을 조절하면서 정밀한 표구기술로 한 겹질씩 풀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 풀기만하면 먹글씨는 부식되지 않으므로 내용파악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게 문화재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이번 종이 두루마리 발견과 관련, 이 유물이 9세기 중엽이전에 제작된 것이라면 이 종이는 스님들이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견장소가 화엄사이고 화엄사를 창건했던 연기조사가 신라 경덕왕 13년(754)에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발문에 사경의 동기와 종이 제작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단계에 널리 유행했던 사경은 4세기 불교의 전래와 함께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

한편 종이 두루마리와 함께 발견된 청자양이병도 청자발생설 규명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불심시심 〈28〉

맑은 음악인 솔바람

月波翻石壁 월파번석벽	달의 물결 돌 벽에 부딪히고
松籟含淸音 송뢰송청음	솔바람 맑은 노래 보내네
於斯若不會 어사약불회	여기에 이해함이 없다면
孤負老婆心 고부노파심	헛되이 보내는 노파의 마음

윗 시는 서산대사의 큰 제자의 한 사람인 소요당(逍遙堂1562~1649)의 시이다. 소요당의 법휘는 태능(太能)이고 속성은 담양오씨이다. 대사는 선기(禪機)와 인정이 넘치는 시를 두루 잘 썼다. 속세의 거사들과 주고 받은 시는 스님이라기보다는 그저 인정이 솔솔 넘치는 후덕한 할아버지를 연상케 한다.

위의 시는 담박한 산 생활의 일상을 말한 것이지만 은연중에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었다. 달 빛이 아닌 달 물결이라 했다. 물결이란 유동의 물체이다. 빛이 없으면 모든 물체를 보지 못하되 빛 자체를 유동의 물체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달에서 여기까지 미쳤다면 물결쳐 흘러 왔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달 물결이란 말이 자연스럽다.

여기에 상대되는 솔바람의 송뢰는 자연의 소리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러기에 해맑은 음악이다. 이것이 모두 자연의 실상이요 진여법리의 드러남이다. 그것을 인간세사로 대체시켜 돌벽에 부딪는 달물결이라거나 해맑은 노래를 들려 주는 솔바람이라 했을 뿐이지 실상 그대로 두어도 물결이거나 노래는 아니다. 그저 있는 자연의 여여한 실상일 뿐이요 그 자체가 진리의 실상인 진여대전의 법체일 뿐이다.

따라서 깨달음의 실상도 이러한 여여한 실상의 있음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법체의 실현이 바로 이것인데 이 법체의 실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평생을 산사에서 지낸 이 늙은이는 헛되고 만다. 작자인 소요대사의 선적인 세계는 이렇듯 가까운 주변사물의 이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시에는 승속을 떠나서 담박한 인정미가 서렸던 것이다.

이 시에서 만약(若)이라는 한 마디는 알듯 모를듯 많은 여운을 남긴다. 안다 함인가 모른다 함인가 안다하면 교만이요 모른다 하면 자가당착이다. 시의 묘미는 역시 알듯 모를듯한 여운의 유장함에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개방적 사회'가 불교미술 발전 기여

대고구려국보전 2차 학술강연 홍윤식교수등 발표

중앙일보사와 삼성문화재단이 주최한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1)」의 제 2차 학술강연회가 지난 28일 삼성생명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고려불교미술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홍윤식교수(동국대)는 고려시대 불교미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고려시대는 어떤 사회였던가 △불교에 대한 기본개념과 미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방법을 동시에 접근 △고려시대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된 불교종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교수는 "고려불교미술의 흐름, 즉 그 역사적 변천은 고려사회가 신라시대의 관념적인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의 불교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고려불교문화의 역사적 변천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시대 일반회화를 고려초기·중기·후기·말기로 나눠 「고려시대 일반회화의 발전」에 대해 강연한 홍선표소장(한국미술연구소)은 "개국 초기부터 유학적 문치주의를 지향했던 고려시대에는 지식계층이 문사적 한묵(翰墨)풍조와 회화이론을 적극 수용함으로서 새로운 회화조류의 전개에 중추적 구실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신문화연구원 천혜봉객원교수는 「고려시대의 인쇄술」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목판인쇄술과 활자인쇄술로 구분할 수 있는 인쇄술은 고려말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충적 위치에서 병행적으로 보급, 보전하면서 고려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10만 관람객을 돌파한 「대고려국보전」은 연일 3천여명의 관람객이 줄을 잇는 가운데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현존 '고려불화' 모두 담는다

국내외 발견 140여점 '집대성' 11월초 발간

고려불화의 현존작품을 모두 담은 도록 「고려시대의 불화」가 나온다.

미술 사학자들의 연구단체인 한국미술연구소(소장 홍선표)에 의해 11월초에 발간 예정인 「고려시대의 불화」는 도판평, 해설편의 2권으로 국내외에서 발견된 1백40여점을 집대성한다.

93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을 현지조사한 불화를 엑스레이, 적외선등 첨단기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1천여점의 사진이 실릴 이 도록은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고려불화연구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도록에는 그동안 존재도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 발굴된 일본 대천사(大泉寺) '아미타삼존도' 조호 손자사(朝護孫子寺)의 '지장보살도' 지은원(地恩院)의 '지장시왕도' 등 30여점도 포함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려시대의 불화」의 발간 준비와 함께 조선불화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 한국미술연구소는 내년 5월엔 조선불화 1백여점을 수록한 「조선시대의 불화」(가제)도 발간할 예정이다.



'장보고의 꿈' 해외 나들이
1~3일 국내공연후 美등 6개국 순회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의 불심과 기상이 서울을 시발로 해외 6개국 7개도시로 퍼져 나간다.

KBS 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뮤지컬 「장보고의 꿈」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여의도 KBS홀에서 공연된다(1일 오후7시30분, 2일 오후4시·7시30분. 3일 오후4시). 김지일씨가 극본을 쓰고 김상열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안무는 국수호씨가 맡았다.

'진혼제' '풍어제' '법화원 예불' '청해진 건설' 등을 테마로 이어지는 뮤지컬 「장보고의 꿈」은 장보고의 진취적인 삶과 동포애, 법화원을 세워 동포들의 안락을 희구하는 불심, 해상제국 건설의 꿈과 좌절 등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다. 장보고역에는 중견 탈렌트 임동진씨, 그의 스승인 이사고역에는 김성원씨, 숙적 염장역에는 최종원씨가 가담해 국수호씨의 안무에 맞춰 무대를 장식하게 된다.

서울공연을 마친 뒤에는 7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미국의 LA·샌프란시스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상파울로, 캐나다의 벤쿠버, 호주의 시드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등에서 순회공연을 갖는다. (문의=762-6194).



고뇌·깨달음 '춤사위'
이선옥씨 6일 부산공연

재미무용가 이선옥(뉴욕대 부교수)씨가 부산 창작무용연구회(회장 이현미)의 정기발표회에 안무자로 초청받아 「선무가: 바라밀타Ⅱ」를 9월6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선무가: 바라밀타Ⅱ」는 작년과 올해 파리와 뉴욕에서 선풍적인 호평과 관객동원에 성공한 '육바라밀'을 바탕으로한 '제 2의 바라밀'로서 범패, 선무기법, 결인법, 선회와 작곡가 조셉첼리의 현대음악, 금강승(한국 고유의 불교 무술)을 총동원한 종합예술.

부산창작무용연구회가 처음으로 외국 객원 안무가를 초청, 새로이 시도하는 창작무대인 이번 공연에서 이선옥씨는 업으로부터의 고뇌와 깨달음을 춤사위로 보여준다.

「연꽃」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한 이선옥씨는 이번 공연에서 "불교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의식적 무용이면서 완전한 창작작품"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예이츠

예이츠 詩속 '반야'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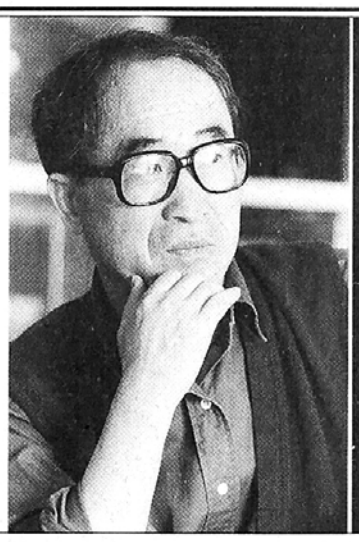
서혜숙교수 '예이츠, 존재의 완성…' 펴내

기독교적 가풍(家風)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교, 우파니샤드 같은 동양종교와 철학에서 '신성한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예이츠(1865~1939).

격변기를 살다간 시인 예이츠의 시들이 갖는 공통된 핵은 '존재의 통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가 남긴 작품중 선불교의 영향아래 쓰여진 시들에 대한 분석을 해 91년에 건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서혜숙교수(논문은 '예이츠 시 연구:동양적 접근')가 그의 생애와 작품을 체계적으로 풀어낸 〈예이츠, 존재의 완성을 향하여〉를 펴냈다. (건국대 출판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시 예이츠의 동양적 사고가 듬뿍 배인 시편들이 속하는 〈탑〉과 〈나선형의 계단〉 등의 시집들에 대한 해설이다. 예이츠의 〈탑〉의 작품들이 현실적인 실체를 바탕으로 영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나선형의 계단〉은 영혼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인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시편들은 예이츠가 선불교에 관심을 두고 '반야'의 궁극의미를 시어로 풀어낸 '시인의 지혜'를 가능케하는 것이란게 서교수의 주장.

창작과비평사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1
TEL. 718-0541~4 FAX. 713-2403



소설 禪 1, 2
高 銀



선의 역사, 선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소설화한
한국문학사상 최초의 禪小說!

6세기경 페르시아 혈통의 인도승 달마(達磨)가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을 연 이래 6조(祖) 혜능에까지 이어지는 대선사들의 고행에 찬 수행과 득도, 오묘하고 그윽한 그 불립문자의 세계가 대시인 고은 선생의 활달한 필치로 그려집니다. 5호16국시대, 남북조시대 중국의 난세를 배경으로 지배적인 황실 불교에서 벗어나 대승적 입장에서 수행정진에 힘쓰는 수많은 고승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득도행과 비밀리에 행해지는 법통(法統) 승계, 수많은 불교 공안들이 흥미를 더하며 박진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고은 선생께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의 경지를 불교사상 최초로 장엄한 대하소설로 형상화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고은 선생은 잘 알다시피 불교계의 풍운아요 한국의 대표적 자유인이다. 이제 여기 깨달음의 세계를 뼈를 깎아 붓으로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은 고행으로써 세상에 내놓았으니, 이 소설은 마음의 근본을 비추는 본래면목의 거울이 아닐 수 없다.
— 동국대 총장 宋 錫 球

각권 값 6,500원

BBS '밤창' 진행 김광석씨

포크가수론 첫 1천회 콘서트

'맑고 향기롭게 운동' 동참 음성공양도

"1천회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 노래에 충실하려고 한 것 뿐 입니다."

8월1일부터 31일까지 대학로 학전 소극장에서 여름정기공연을 벌이고 있는 김광석씨는 지난 11일 포크가수로는 처음으로 1천회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91년 7월 쎄실극장에서 첫 라이브 콘서트를 가진뒤 지금까지 공연관람객은 30만명을 웃돌고 있는데 이런 기록이 가능한 것은 매회공연마다 늘 새로움을 주는 무대와 산사의 계곡처럼 서정성 있는 맑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죠. 솔직하게 느끼는 것을" 짤막하고 겸손한 대답처럼 그의 음악성은 법정스님이 주신 '원음'이라는 법명과 묘하게 일치한다.

포크시장이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김광석씨의 라이브 콘서트에 몰려드는 관들을 보면 예외처럼 느껴진다.

현실을 정직하게 노래하며 대중음악의 책임감을 지고 양심을 지켜낸 김광석씨의 자존심과 관들의 자부심이 포크의 명맥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김광석씨는 불교방송의 심야 가요프로 '밤의 창가에서'(24:20~01:55)를 인기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장본인 이기도 하다.

91년 가을부터 93년 10월까지 진행을 맡다가 잠시 떠난뒤 올해 봄 개편부터 다시 진행을 맡고 있다.

김광석씨의 '밤의 창가에서'는 늦은밤에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김광석씨는 "부담없이 들어주는 애청자들이 있어서 방송하는 마음도 편안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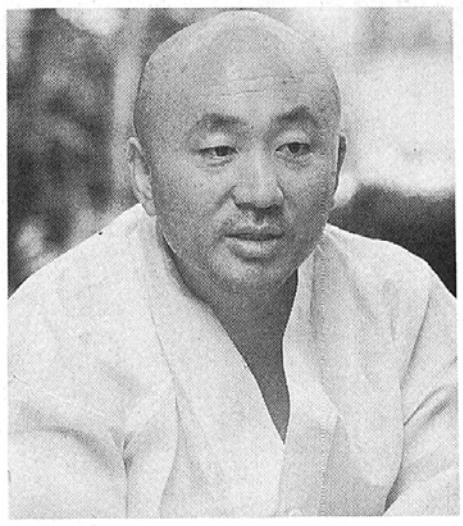
그는 법정스님이 펼치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도 동참하여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는데 그의 음악과 운동이 조화돼 불자들의 호응또한 높다.

〈원〉



'신행 길라잡이' 어깨 무거워

btn 'TV 신행상담' 진 옥 스님



부처님 가르침 이해에 역점
매주 여수서 상경 '열의' 보여

"기초교리의 확실한 공부와 생활속에서 실천의지가 올바른 신행의 조건 입니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불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입장에서 철저한 정법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 'TV신행상담'(목 11:10~12:00) 프로에서 6개월간 상담해온 진옥스님(여수 석천사 주지)은 차분한 대답으로 불자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불자들이 기초교리에 공부가 깊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양대학 등에서 공부를 한 불자들의 경우에는 생활속에서 실천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때문에 카메라 앞에 앉으면 신행의 길라잡이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보다 좋은 방송을 위해 공부하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진옥스님은 "아직 카메라에 익숙치 않지만 상담을 신청하는 불자들과 법당안에 함께 앉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고 말했다. 진옥스님은 TV 신행상담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비행기나 버스로 서울에 와서 다음날 방송을 마치고 내려가는 힘든 일상을 감수하는 등 열의가 높아 제작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진옥스님은 75년 구례 화엄사에서 명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여수MBC 5분 칼럼을 5년간 진행했었다.

김원우 기자

"BBS 추석특집 명절 흥 돋운다"

'한가위만 같아라' '나의 고향이야기' 등 프로 다양

BBS는 올 추석특집으로 고향이야기, 한가위 노래잔치 등 구수한 토속정취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소재의 휴먼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8일에 방송되는 생방송 '한가위만 같아라'는 한가위의 의미와 우리 민속명절의 멋을 되새겨 보는 프로이며 '고향에서 만납시다'는 서울 부산 광주를 3원으로 연결하여 고향길 교통소식과 따뜻한 고향의 반가운 손짓을 느끼게 해준다.

추석 당일에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외로움을 함께 나눠보는 휴먼 다큐멘터리 '한가위와 더불어 느끼는 행복'을 방송하며 명사초대석 '나의 고향이야기'는 그리운 고향과 추석 풍경의 세태를 더듬어 본다.

이와함께 10일에는 생방송 민요큰잔치 '너도 나도 노래방'을 방송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의 기쁨을 함께 한다.

btn '날마다…' 챠밍등 코너 확대

btn의 아침정보 생방송 프로그램 '날마다 좋은날'이 제작팀을 새로 만든데이어 내달 4일부터 코너를 대폭 확대한다.

'날마다 좋은날'(월~금, 10시10분)은 주 6회에서 주 5회로 축소됨과 함께 기존의 불교전문프로에 생활정보, 법률, 챠밍, 패션등의 코너가 신설 확대되며 남자MC가 이정부 아나운서에서 시인 하재봉씨로 교체된다.

"종교프로 시청위해 CATV 가입" 2%

종교프로그램을 시청키위해 케이블TV를 가입한 시청자는 전체 가입자의 2%이며 이들중 75%가 '비교적 기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역 SO지역에서 10대 후반부터 60대이상 남녀 4백명을 무선표집하여 전화서베이 방식으로 현황및 가입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해약의사를 밝힌 기존 가입자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가 48.5%나돼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tn 특강 공개강연 송석구총장·박완일씨

불교텔레비전은 'btn특강'(목 12:30~13:20) 공개강연을 내달 3일과 7일 12시 30분 구룡사 문화회관 1층에서 개최한다.

9월 3일에는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무너진 윤리의식 불교가 세워야'를 17일에는 박완일 전 조계종신도회장이 '바쁜세상 넉넉한 마음'을 주제로 강연한다.

해외통신

'환희사' 건립불사 추진 룸비니동산 개발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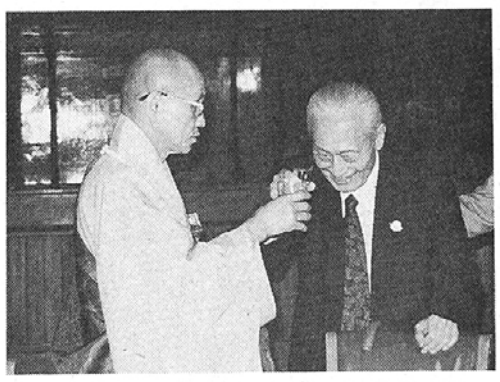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네팔 룸비니동산 개발계획에 한국사원 '환희사'의 건립불사가 추진되고 있다.

월하스님을 증명으로 종단협의회와 불교진흥원 등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번 건립불사는 유엔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세계불교연합회 룸비니개발위원회로부터 사찰부지 6천평을 확보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수도도량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불사의 건립위원은 관음사 지현스님, 신안사 동윤스님, 운흥서원 성종스님, 홍교사원측스님, 불지사 김형균사장 등이다.

만델라 명예박사 학위 일본 창가대학서 수여

이케다다이사쿠(池田大作) 창가학회 회장은 지난달 5일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남아공의 넬슨만델라 대통령과 회견을 갖고 남아공 문화·교육에 대한 노력을 평가 창가대학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 지난 5월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중국 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이 양국불교 발전을 위해 건배하고 있다.

한·중 수교 3년에 본 양국 불교교류

개인·사찰·종단차원 상호교류 다양화 추세

지난 24일로 한국과 중국의 수교 3년을 맞았다.

공식적으로 한·중 양국간 불교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수교 2개월 후인 92년 10월11일~15일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불교지도자 평화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문'의 정신과 관련 19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 회장 서의현스님과 중국불교협회 회장 조박초회장이 '한·중 불교교류협정서'에 서명을 함으로 본격적인 양국간의 불교교류에 청신호를 비쳤던 것. 이 협정서의 핵심이었던 △인적교류 △교리공동연구 △유학생 파견 △학술교류는 종단협과 중국불교협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돼 오던 개인이나 사찰 종단 차원의 교류에 새 활력이 됐다는 점과 지난 5월에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이끌어 낸 시발점이었다는 점등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천태종과 국청사의 종단적 교류, 94년 논문집〈선과 동방문화〉를 펴낸 한·중 불교학술교류회의 학문적교류 외에도 연변지역을 중심으로한 사찰단위의 교류와 동국대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학술교류도 꾸준하다.

〈태〉

원폭희생자 천도영산재 봉행

태고종, 日 나가사키서 내달 19~23일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이 다음달 19~23일까지 5일간 일본 나가사키에서 광복50주년기념 원폭희생자 천도를 위한 영산재를 봉행한다.

불교전통의식으로 치뤄질 이번 영산재에는 박서봉총무원장을 비롯 종단중진스님, 영산재 보존회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20일 영산재에 이어 21·22일 양일간에 걸쳐 홍복사, 통장사, 오백나한사 등도 참배하게 된다.

이번 천도재를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앞으로 원폭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총지종 종보 발간 10월부터 격월간

불교총지종이 종단소식지인 '총지종보(발행인 안효강)'를 오는 10월 발행한다.

격월간으로 발행하게되는 총지종보는 총8면으로 종단내·외의 소식, 경전 논문소개, 신앙체험담등을 비롯 승려와 신도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하게 제작할 계획이다.

편집장 이중석씨는 "종단의 대외홍보는 물론 종단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하일라이트

btn ch32

'복길 엄마' 김혜정씨 출연

김병조의 스타쇼 (30일 11:10~12:00) 불심깊은 성실한 연기자 김혜정. 크게 욕심없이 살아가는 김혜정은 88년 환속시인 황청원과 결혼한 이야기와 농촌의 실상과 훈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자들은 늘어나고…

구화산 지장법사 (2일 12:30~13:20) 신라까지 소문난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제자가 되는 사람이 늘자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로 결정하는데…

박희선 박사의 불교인연

나의 삶 나의 불교 (2일 11:10~12:00) 전 서울대 교수인 박희선 박사를 초청하여 중년의 나이에 일본유학을 떠나 만나게된 불교와의 인연 그리고 칠순에 에베레스트를 오른 잔잔한 신행이야기를 들어본다.

악인 프랭크와 맞선 케인

만행승 케인 (3일 21:05~22:00) 악을 파는 아름다운 테오도라와 곱사등인 니보와 만난 케인은 악독한 프랭크와 맞서는데…, 니보는 프랭크를 홀로 막으려 하며 테오도라와 서로 섬기는 사랑을 보여준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성열스님과 '아함경' 공부

경전공부 (2일 오전 6시5분~25분) 아함경중 '해탈의 업, 사무량심'에 대해 강남 포교원의 성열스님이 강의.

한국불교의 역사 강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 (30일 11:05~11:20) 한국교원대 김상현 교수가 출연하여 '한국불교의 역사'에 관하여 강의한다.

'무상'의 의미 집중 조명

교리강좌 (31일 오전 6시40분~7시) 부처님 최후의 말씀, '삶은 무상하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를 들어보는 시간.

박영동 법사 진로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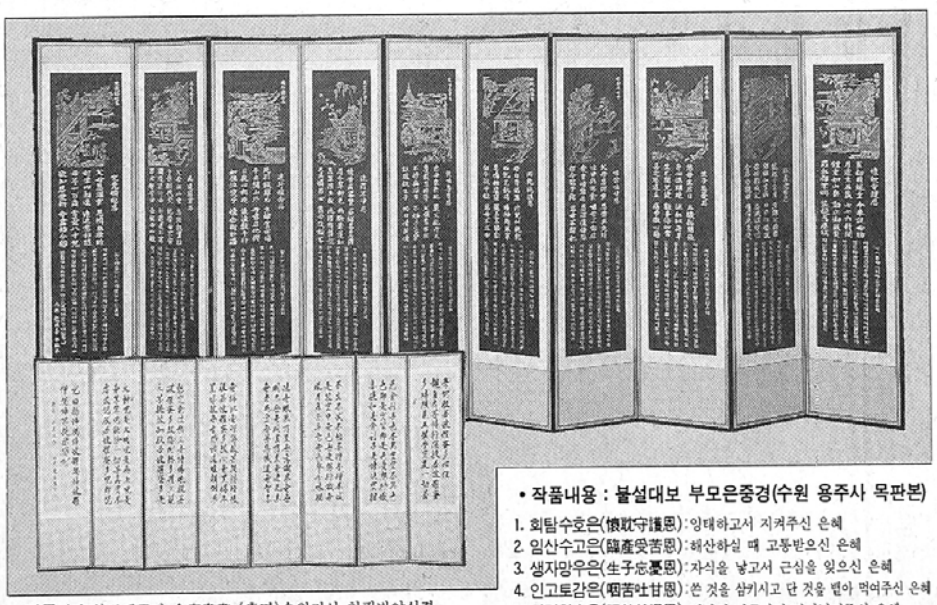
언제나 푸른불교 (1일 14:10~15:00) 박영동법사가 출연하여 젊은 불자들의 진로고민을 상담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효의 본찰 용주사에 모셔진 성보!! 부처님께서 설하신 효의 경전

佛說大報 부모은중경 병풍

추석 특별보급 48점

효행과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조상님의 은덕과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 효심을 깨우치게 하는 살아있는 인륜대도병풍



■ 작품 (전면)밤색공단 金字書畵 (후면)송원거사 친필반야심경
■ 규격 (높이) 5자 8치 (폭) 14자 고급스기목 7겹배접(10폭)
■ 추석특가 ₩ 480,000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 작품내용 : 불설대보 부모은중경(수원 용주사 목판본)
1.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잉태하고서 지켜주신 은혜
2. 임산수고은(臨產受苦恩):해산하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
3.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자식을 낳고서 근심을 잊으신 은혜
4. 인고토감은(咽苦吐甘恩):쓴 것을 삼키시고 단 것을 뱉아 먹여주신 은혜
5. 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뉘어주신 은혜
6.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젖을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7.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깨끗하지 않은 것을 씻어주신 은혜
8.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멀리 길을 떠난 자식을 걱정해주신 은혜
9.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자식을 위해서 모진 일도 서슴치 않으신 은혜
10. 구경련민은(究竟憐愍恩):최후까지 자식을 연민히 여기시는 은혜

구입 문의 기획 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

자비의 마을 대자원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자비행으로 지체 장애인·고아·무연고 노인(연고가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노인분도 가능)·미혼모 자활을 도우고자 하오니 입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 곳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 74-3번지
■ 전화 : (0558) 32-7221~3 / 팩스 : (0558) 32-7224
벽담사 (부설) 대 자 원
■ 참고 : 상기의 장소에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제공할 시설은 현재 약 3,000평 규모의 대지 위에 건물 3동(약 200평) 현대식 화장실, 대중탕, 휴게실, 대중식당 등 2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음

* 운영 경비는 본 벽담사 신도회(약 3,000세대) 및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음.

"할머니 할아버지 자비로 모셔요"

보리수·성라마을 실버타운 곧 '오픈'…교계 노후시설 20여곳

경기도 부천에 살고있는 김수월화 보살(65세). 요즈음 김보살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들뜬 꿈에 젖어있다. 하나뿐인 딸마저 이민을 떠나 갑자기 혼자된 김보살이 보금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얼마전 김보살은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이사장 법성스님)이 경기도 가평에 건립중인 성라노인마을을 찾았다. 평소 부처님 품안에서 기도하며 살기를 발원하던 차에 성라노인마을은 김보살의 새삶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최근 불교계는 김보살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속속 건립,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대표적 실버타운은 성라노인마을과 조계종 복지재단이 강원도 양양에 세우고 있는 보리수 마을(대표이사 시현스님).

오는 12월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이들 실버타운은 이미 20%의 입주신청이 접수됐다.

실버타운은 법당을 비롯 진료·체육·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본격적인 노인복지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이외에도 교계에는 무료양로시설을 갖추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곳들도 있다.

거제도 벽담사(주지 영안스님)와 평택 유점사(주지 월도스님)가 각각 대지원과 미륵당을 건립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무료양로시설은 무의탁 생활보호대상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신심있는 불자라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현재 교계에는 실버타운, 양로원등 20여개의 노인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은 "노인복지시설들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족중심의 문화전통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정서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이 외면 당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경비가 만만치 않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경험부족과 운영상의 미숙등은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가오는 2천년 고령화사회를 대비, 노인복지사회를 향한 교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부처님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불교 노인복지시설은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때 새로운 포교의 장으로 자리잡게 될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이은자 기자〉

선학원, 연수원 건립키로

재단 발전추진위 구성…행자교육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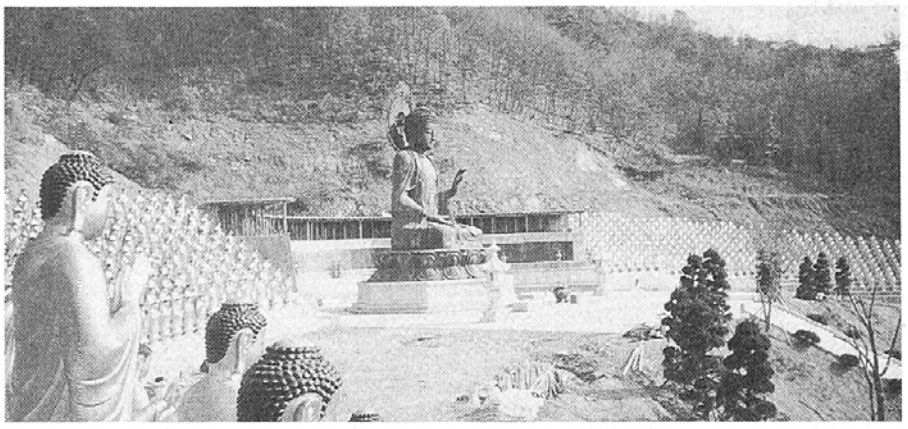
(재)선학원에서 행자교육 및 스님들 연수를 위해 재단차원의 연수원을 건립한다.

선학원은 지난 21일 중앙선원 시민선방에서 중진분원장회의를 열고 재단의 발전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단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일스님)」를 구성, 첫사업으로 연수원 건립을 결의했다.

재단발전추진위는 중진분원장스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결성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며 재단발전기금도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행자교육을 위한 연수원 건립이 향후 조계종과의 분종까지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학원 도제들이 조계종 행자교육에서 제외되었기에 재단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본 재단에서는 연수원뿐 아니라 승려 노후복지시설 건립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업이 따로 종단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선학원 이사회는 지난 7월25일 심광사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인행스님과 설정스님을 대상으로 △주지직무 인수인계 △공개사과 △재산강점기간동안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키로 했으며 이같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 참회도량 고불산 성곡사가 9월17일 대불 및 천불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불사시작 3년만에 회향되는 성곡사 대불은 국내 최대 크기의 청동좌불이다.

성곡사 대불봉안식 봉행

국내최대좌불…9월17일 천불도 점안

고불산 성곡사(주지 관묵스님)는 9월17일 오전10시 대불 및 천불 점안 회향식을 봉행한다.

성곡사에 모셔진 석가모니 청동대불은 좌불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부처님으로 높이만 12.5m이다.

3년전부터 관묵스님은 "2천5백년전 부처님 재세당시 영취산에서 대비구경을 모아놓고 법화경을 설하시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면서 성곡사를 참회기도 도량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선행뱅크 개설 논의

불자연; 봉사평가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자원봉사연합회 법당에서 95여름 서울 청소년 자원봉사 평가회 분임토의를 갖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선행뱅크 개설 등을 논의 했다.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와 후원운영위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부모등이 참석한 이날 토의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평가 통계도 함께 발표돼 올바른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의 참고 자료가 됐다.

이와함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취재 제작한 청소년 자원봉사신문 '보람의 나날들'도 발행됐다.

낙동강 연등 대법회

10월 28일 을숙도서

제5회 낙동강 연등대법회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관) 주최로 10월28일 오후2시 낙동강 하구인 을숙도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법회는 월하 조계종 종정스님을 증명대법주로 하여 △인류구원의 대승보살정신 발양 △불교적 이념에 의한 남북평화통일의 정신적 기반조성 △21세기 세계정신문화를 주도할 불교의 진리광명 시현 등에 역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한다.

속초 보광사 특별조사위 구성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이냐 공찰이냐"

조계종 중앙종회(회장 설정스님)는 지난 18일 속초 보광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대한불교 보광사 대표 이순덕(74) 보살과 주지대행 석문스님은 지난 8일 녹수청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찰과 부동산을 조계종에 공찰로 헌납했으나 조계종 총무원이 조계사주지 현근스님을 주지로 하는 사설사암으로 등록했다"고 밝히고 "사설사암등록을 취소하고 공찰로 등록하여 평생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정우(위원장), 장곡(간사), 화범, 성문스님이다.

울산종교인 환경선언

단속등 세부계획 수립

울산지역 종교인들이 본격적인 환경실천운동에 나섰다.

불교의 동축사 놀암스님 등과 개신교 카톨릭 종교인 1백명은 지난 16일 울산시청에서 '21세기 푸른 울산 건설을 위한 울산지역 성직자 1백인 환경선언'을 발표하고 환경관련 행정과 효율적 단속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또 더이상 지역환경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며 울산시에 종합적인 환경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청화스님등 40여명

5·18 진상규명 촉구

청화, 지선스님을 비롯한 스님 40여명은 지난 25일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12 재조사 및 5·18 광주참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민족정기 회복을 요구하는 조계종 승려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30일 이차돈성사 추모재

이차돈·원효 양 성사(聖師) 봉찬회가 주최하고 신라문화원이 주관하는 '이차돈 성사 추모재'가 30일 오전 10시 경주 통일암, 흥륜사, 백률사 등에서 봉행된다.

이번 추모재는 원효성사 추모재와 더불어 이 지역의 양대 추모재로 추모재가 끝난 후에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법회 및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사법개정 중지 촉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과 관련, 전불련이 23일 성명을 내고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불련은 종회 분과위에서 검토된 전사법상 '재산처분승인'조항 개정사항에 대해 사찰 경외지 처분권마저 정부의 관장하에 두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불교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단의 자기정화와 재무행정쇄신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수 송환' 회담 제의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19일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 앞으로 전문을 보내고 오는 9월9일 판문점에서 비전향 장기수 북송에 관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에 따라 진관스님은 지원스님(운영위원장)과 함께 지난 22일 통일원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매가 1%는 후원금

경불련 자비의 집(회장 등광)이 삼성전자에서 실시하는 '작은 나눔 큰 사랑 운동'의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이로인해 삼성전자에서 판매되는 7대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구매가의 1%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아 자비의 집과 상계동 무료급식소로 보내면 모두 자비의 집 후원금으로 전액사용되게된다.

간병인협회 정기총회

불교간병인협회(회장 정진스님)는 지난 24일 95상반기 정기총회를 갖고 상반기 결산보고 및 하반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간병인협회는 오는 9월 21일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수련대회를 벽송사에서 가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10월경 창립 3주년 기념 일일 찻집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간병인협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제 9기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지사 053)426-2779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승가교육 개혁추진위 30일 첫 모임

교육체계 정착위한 세부방안 논의

종단의 각종 교육기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8월30일 오후2시 조계종 총무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모임을 갖는다.

총무원과 교육원 중앙승가대 지방승가대 동국대 선우도량 등 교육관계 중진스님 등 22인으로 구성된 승가교육개혁추진위는 매월 월례 워크샵을 실시 교육개혁안을 마련 추진한다.

실천승가회 수련대회

31일까지 양양 낙산사서

실천승가회(공동대표 청화·지선스님)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양양 낙산사 수련원에서 '제2차 실천승가회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지홍스님(집행위원장)과 금강스님(조직국장)이 각각 '개혁종단의 진단과 전망' '변화의 시대, 실천승가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주제발표와 도법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의 지홍스님 발제에 대한 논평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제발표후에는 분과토론과 문화프로그램, 공동체 시간 등으로 자체내의 화합도 도모하게 된다.

범어사 산문폐쇄 유보

말사주지 연석회의 시민불편 고려

범어사(주지 정관)가 사찰 앞 경동건설 아파트 건립문제와 관련 산문폐쇄 방침을 일단 유보했다.

범어사와 말사 주지스님등은 지난 23일과 24일 연석회의를 갖고 경동건설과의 재판이 진행중인만큼 산문폐쇄는 일단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어사의 유보는 사찰을 찾는 불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한 부산불교지도자 간담회가 지난 22일 열려 사찰 앞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당성을 재확인했다.

부산 선암사 입구에도 '아파트'

불자·시민들 "환경보호 역행처사" 반발

금정산 범어사 앞 고층아파트에 이어 부산 백양산 선암사 입구에도 25층 규모의 아파트 3천세대가 시공예정으로 있어 부산시민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부산진구 당감3동 선암사 입구에 건립예정인 이 아파트는 선암사의 조망권은 물론 백양산(해발 641m)의 자연경관까지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암사 신도를 비롯한 환경보호단체들은 한결같이 시공반대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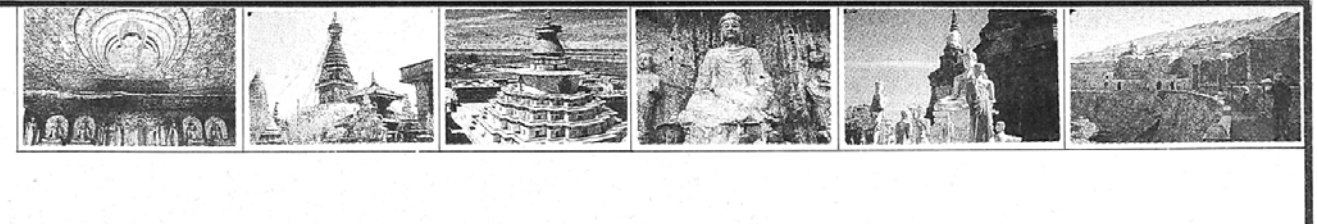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건립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덕륜), 중앙승가대학 범어문도학인, 불교환경운동연합(상임고문 월강) 등은 지난 24일 결의문을 내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대한주택공사와 허가를 내준 관계당국의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행정을 비난했다.

東大 후기학위수여식

박사 40·석사 73·학사 317명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5일 중강당에서 '95 후기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40명, 석사 73명, 학사 317명(서울 225명, 경주 92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지난 23일 총장실에서 동국발전협의회 이시우·강창순, 총무처 용호중·김문일씨의 정년·명예퇴임식을 가졌다.



불교 성지 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9월 1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9월 22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 발 : 9월 30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 발 :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 160만원
· 일 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 등)-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9월 16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9월 1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눈 있는 사람 눈이 있기를 바랄 뿐



피카소와 남산골 솔거

이태원 2동에 사는 남산골 솔거는
배짱을 담보로 돈을 마구 빌려다 쓴다.
그림병에 걸려서
저 승인지 이승인지 중간쯤 살고 있다.
억대를 호가하는 그림이 팔리는 장안에서도
남산골 솔거는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
남산골 솔거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아마도 현명한 바보일거야.
솔거가 욕심이 없듯이 솔거의 그림을 보고
까치처럼 날아 든 사람들일꺼야.
솔거는 제조상도 알고 피카소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세상에 가 있는 피카소가 밤마다
남산골 솔거네 집에 놀러온다.
나는 남산골 경이요
당신은 뭣이든지 빌어 돌리는 무법자요
당신의 변덕을 내가 알고 있지.
피카소는 암호로 그림을 그렸고
이태원 솔거는 바람으로 그린다.
당신은 똑똑한 친구가 많아서 엄동한 지을 잘도 했는데
솔거는 밤마다 하산을 해봐도
빈잔을 채워줄 친구가 없다.
솔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나 있지만
속속들이 솔거를 모르기 때문에
솔거의 그림은 제값을 못 받는다.
이태원 2동에 사는 남산골 솔거는
그림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눈있는 사람들이 눈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금덩이는 언제나 가만히 있는게 생명력이야
스스로 구르지 않는 법이야
이태원 2동에 사는 남산골 솔거는
배짱을 담보로 돈을 마구 빌려다 쓴다. 이석조 〈서양 화가〉

선재들의 합창 ②

주부신행담



입원한 병식이를 보며 컴퓨터 촬영과 '연탄 천장'을 두고 망설이는데 창가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된 일이지만 두 비구스님은 주지스님의 소임을 맡지 않으려고 궂은 일을 하면서 우리 천마재활원에 숨어 계셨던 것이다. 수소문 끝에 송광사의 방장스님이 서화 두 점을 보내 주시게 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이후 나는 수행자의 올곧은 자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소위 재활원 원장이라는 버슬(?)에 대해서도 뒤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원장 버슬만으로는 불제자로서의 도리로 소외받은 이의 따뜻한 동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재활원 원생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지만 자금으로부터 십수년전에 나와 인연이 되었던 병식이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병식이는 만 십이세라고 하나 왜소한 체격과 한쪽 다리에 마비증상을 가지고 바싹 마른 사내아이로 내게 다가왔다. 멀쩡하던 유리창이 갑자기 깨어진다든지, 한 여름에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또는 엄동설한에 연탄불이 꺼졌다고 하면 그 대부분은 병식이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병식이는 전생의 어떤 과보에서인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알아 듣는것 같지도 않았다. 워낙 말썽꾸러기 였던지라 자연히 나의 눈에 띄게 되었으며, 그러던 어느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애가 또래의 아이들과 귀여운 음성으로 아주 빠르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순간 나에게 병식이가 선천적인 정신박약이 아니고 어릴때 한쪽 다리의 심한 화상으로 인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으로 어떤 망각증세를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애의 회복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거르기 일쑤였던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다. 사실 그 시절의 내 생활은 재활원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찰에 나가는 일에 무신경해져 있었다. "내게 급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결국 부처님을 찾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부처님께 열심히 매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을 안하던 병식이가 내가 말을 시키면 불편한 다리에 힘을 주면서 아주 느리게 "어머니"라 말하고 대답도 곧잘 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수선한 일과 중에도 병식이와 맞닥뜨리면 반드시 '어머니'란 말을 시키고 다리운동도 하게 하면서 그애의 회복을 기원했다. 세월은 바쁘게 사오년이 흘러갔다.

눈에 띄는 호전은 없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병식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하루는 몸이 점차로 수척해져서 큰 병원에 진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병식이는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나 뇌의 컴퓨터 촬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촬영금액이 대략 당시의 연탄 천장값 정도였다.

요즈음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컴퓨터 촬영과 연탄천장을 두고 망설이는데 저만치 창가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까지 매섭게 불고 있었다. 괴로운 눈물을 감추려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방법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며칠간의 우여곡절 끝에 병식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컴퓨터 촬영과 여러가지 조사결과 뇌의 대사장애 일종으로 뇌세포에 계속적으로 영양결핍 상태가 발생된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 알부민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듣게 되었다. 순간 부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여 왜 이런 불행한 아이에게 엄청난 고통까지 감수하게 해야 하는지 따져보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했다. 많은 아이들 중 병식이에 대한 관애를 두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도 해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이래저래 구한 알부민 주사약 세병을 맞은 후 병원측으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고 중환자실로 갔을 때 그애가 담요를 머리끝까지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보육사가 간신히 담요를 벗겨보니 뜻밖에도 장난기 섞인 미소띤 얼굴이 나타났다. 두 주먹을 꼭쥐고 있기에 손바닥을 힘들게 펴보니 동전 몇개가 한쪽 손바닥에서 나왔고 다른쪽은 동전만큼 꼭꼭접은 종이였다. 펼쳐본 종이는 남녀가 뽀뽀하는 내용을 그린 만화그림이었다. 부끄러워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던 그애에게도 인간본능과 희노애락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은 일종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련 〈부산 천마재활원 원장〉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⑧

♦ As a beast unbound in the forest goes feeding at pleasure, so let the wise man, considering only his own will,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숲속의 자유로운 짐승이 먹이를 구하러 가듯 지혜로운 이는 그 자신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There is a constant calling in the midst of company, both when sitting, standing, walking, and going away ; but let one, looking only for freedom from desire and for following his own will,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동료들 속에 있으면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을 때나 여행할 때조차 항상 지나치게 간섭을 받게 된다. 그러나 흔로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뜻에 따라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There is sport and amusement in the midst of company, and for children there is great affection; although disliking separation from his dear friend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동료들 속에 있으면 거기 유희와 환락이 있다. 또 자녀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싫거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He who is at home in all the four regions and is not hostile to any one, being content with this or that, overcoming all dangers fearlessly, let him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어느 곳이든 가고 싶은 대로라.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무엇을 얻든 그것으로 만족해 하라.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조금도 두려워 하지 말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unbound 제한없는, 자유로운
*hostile 적의있는, 비우호적인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중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히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바로 전달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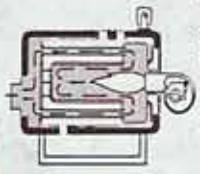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어장 용 보일러가 풍요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가 만든 횡형 보일러는 수박, 토마토, 특용작물 재배 및 양어장에서 그 진가가 빛납니다. 가동이 중단되면 급속하게 공기가 냉각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귀뚜라미 보일러는 하우스내 흙바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운기기름 등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귀뚜라미의 세계적인 신기술인 터보 소용돌이버너가 부착되어 연료비가 훨씬 적게듭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시 전국 161개 대리점망을 통한 신속한 A/S실시로 사시사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됩니다.





세계적인 연료절약형 터보소용돌이버너



강압통풍식 3PASS구조
별다른 송풍장치 없이도 노내의 높은 압력을 형성하는 구조의 연료절약형 횡형보일러입니다.



횡형 보일러는 비닐하우스 높이가 낮은곳에 설치가 편리한 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보일러 SINCE 1962
대표전화 : 02) 798-5126

귀뚜라미 횡형보일러
보일러 국산 1호기로서 최장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횡형구조로 천정의 높이가 낮은 하우스 설치에 적합합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부품수명이 다할때까지 무료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